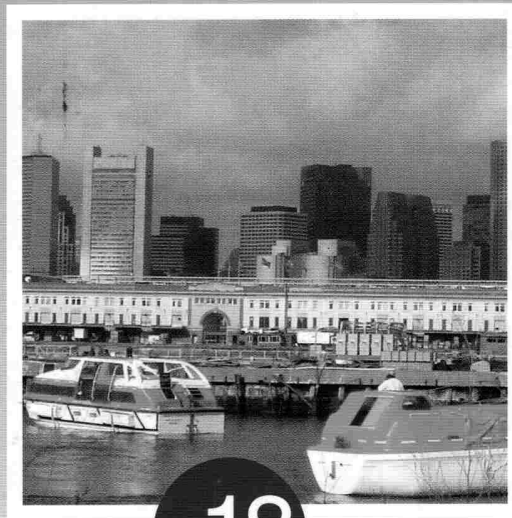


#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18

▶▶▶ 2009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보스톤 정 유학원의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만족도가 검증되었습니다



보스톤정유학원은 각 학생마다 상이한 수학능력 및 각 학과목에 대한 학업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하는 개인지도 전문학원입니다.

## 수강과목

- Academic English, ● Essay Writing,
- College Essay, ● TOEFL, ● SSAT, ● SAT1,
- SAT2, ● Math, ● History, ● Physics,
- Biology, ● Chemistry, ● Homework 지도
- Music Class (Piano 게임실기지도 및 음악이론)

## Guadianship 제공

부모님의 마음으로 내 아이처럼 소중히 ~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
- 주말, 짧은 방학동안 숙식제공 및 보충수업
- 유학생활동증 필요한 모든 편의 제공

## 사립 학교 전학 및 입학 업무

최선의 결과 도출 ~

- 유학상담, 최적의 학교 선정,  
입학원서 작성, 인터뷰지도 및 동행 등

개인지도 전문학원

# 보스톤 정 유학원

93 Union Street #307, Newton Centre,  
MA 02459

(617) 795-7303

(857)205-7266, (857)205-7269, Fax: 617-663-6633







# Mission Statement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사명

##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unique Korean elements to American society. To this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England, and employing various other methods.
-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 3) **Supporting Political Interns:**  
KACL has supported Korean-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political career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ork in Senator's and governor's offices.
- 4)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 5)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 6)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Tel: (508)962-2689  
 Fax: (781)341-8239

<http://www.KACL.org>

● Publisher:  
 Kyunghae Kay Lee

● Editorial Board Advisor:  
 Yang Kil Kim  
 Moon So Kim  
 Song-Kun Kim

● Editor-in-Chief:  
 Kee Young Lee

● Editors:  
 Sang Chul Shin  
 Michael M. Kim  
 Aaron JW Chang

-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발행일: 2009년 4월 20일
- 발행인: 이경해
- 편집고문: 김양길, 김문소, 김성군
- 편집장: 이기영
- 편집위원: 신상철, 김명기, 장정우

Mission Statement	KACL의 사명	4
발간사/ 변화와 포용이 필요한 이 시기에... CHANGE is Inevitable	이경해 회장	6
발간사/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	김양길 이사장	10
Congratulatory Message		
● 매사추세츠 주지사/ 드발 L. 패트릭	▶ Deval L. Patrick/ Governor, Massachusetts	12
● 뉴햄프셔 주지사/ 존 H. 린치	▶ John H. Lynch/ Governor, New Hampshire	13
● 커네티컷 주지사/ M. 조디 펠	▶ M. Jodi Pell/ Governor, Connecticut	14
● U.S. 상원의원/ 존 케리	▶ John Kerry/ U.S. Senator	15
● U.S. 상원의원/ 에드워드 M. 케네디	▶ Edward M. Kennedy/ U.S. Senator	16
● 워싱턴주 상원의원/ 폴 신	▶ Paull H. Shin/ State Senator, Washington	17
● 미연방하원의원(MA 제4지역)/ 버니 프랭크	▶ Berney Frank/ U.S. Congressman, 4th District, Massachusetts	18
● 보스턴 총영사/ 김주석	▶ Joo Seok Kim/ Boston Korean Consul General	19
● 보스턴 광역시의원/ 샘 윤	▶ Sam Yoon/ Boston City Councilor At-Large	20
우리가 샘 윤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		21
Meet Sam !!	by Sam Yoon	22
2009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25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Beyond the Clues	글: 김철 (Terrence C. Kim)	26
경제와 환경의 관계: 상충인가, 보완인가?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Environment	윤은상 교수	35
아시아계 미국사회를 주도하는 한국계 미국인들	by Leverett Wing	42
Reinforcement of Our Democratic Institutions for Future Generation		44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라	by Juliana Kim Moustakas	
내가 바란 그 이상의 것	by Jae Won Lee	50
나에게 꿈이 있다면...	by Yeonman Jung	54
"여기는 보스턴 시의원 샘윤의 사무실입니다."	by Michael Shin	58
역대 정치 인턴 명단 / List of Previous KACL Political Interns		61
2010 Summer Internship Program		62
2010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63
2008년 시민 협회 활동보고	김명기 사무총장	64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66
KACL-NE Financial Statement		71
2009년 수입 · 지출 예산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72
뉴잉글랜드 한인 업소록 The New England Korean Directory		74

이경혜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회장은  
 1971년 도미하여 1974년 하와이의 Chaminade Univeristy에서 사회학 학사,  
 1976년 Boston College에서 사회학 석사,  
 1980년 Boston University에서 Rehabilitation Counseling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New England 한국학교 이사, Bentley Family Executive Committee Member,  
 Advisory Board at Asian Civic Association, 남편과 함께 Lee Associates (Real Estate and  
 Brokerage)를 운영하고 있다.

# CHANGE is Inevitable

## 변화와 포용이 필요한 시민협회

● 회장 이 경 혜

시민 협회와 저의 인연이 어느덧 1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동안은 부회장으로서 김성군 회장님을 도우며 보냈습니다. 한 조직 안에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자리에서 섬기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김성군 회장님은 강산도 바꾼다는 그 십년동안 묵묵히 우리 시민협회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데 너무나도 큰 몫을 해내셨고 그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시민협회에 꾸준히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김양길 이사장님, 고문님들, 이사님들,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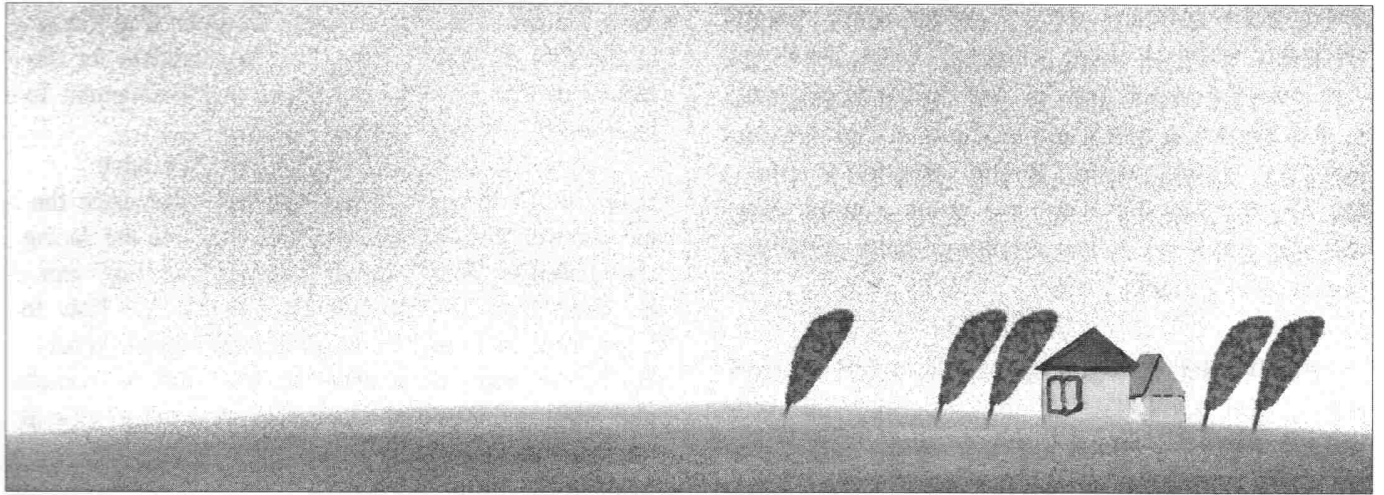


It has been over 14 years since I have been involved with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KACL) and served KACL as a vice president for the past 12 years. I took over the role of President in October, 2008 after Mr. Song Kim's 10 years' presidency. I don't think I know anybody who has worked this long as a president at one

organization. I want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of his time and dedication, his endless effort to develop the system for the Annual Journal Publication, the 10th Year Special Anniversary Project for the political interns, his outreach programs, just a few examples. I also thank Chairman Dr. Yang Kil Kim, the Advisors, the Board Members, the Officers and all KACL members for their continued support during the past year.

제가 처음으로 이 시민협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뒤돌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974년에 하와이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곳의 Boston College에 석사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스턴의 시장은 케빈 화이트였으며 미디어에서는 흑인과 백인 학생들의 School Bus Desegregation을 크게 특별뉴스로 다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때에도 여론에서 대서특필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는데 언제나 저 자신의 삶과는 다른, 별개의 세상이야기roman 치부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별 신경을 안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의 사고방식

I like to share how I have become interested in KACL: Looking back the time when I had arrived in Boston to attend Boston College in 1974, Mr. Kevin White was the Mayor and I had heard of the



은 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섬세한 차별을 느끼던 당시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세하게 나를 조금씩 자극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찾아지면서 이에 반응하는 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 우연한 기회로 매년 발간되는 시민협회저널을 접하게 되었고, 시민협회의 운영목적과 사명을 읽으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교민들의 권익향상, 정치적 협조와 정부조직의 활동에 적극 참여...” 미국의 한 시민으로 투표현장에 나타나 나의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저의 이 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었습니다. 더욱 더 이 땅의 정부 관료시스템에서 한국계는커녕, 동양계 관리를 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을 이곳 매사추세츠에서 보냈습니다. 그 동안 이 곳의 주정부, 그리고 워싱턴의 미연방정부의 조직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서히 정치적 모델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던, “변화”쪽으로 그 패러다임을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흑인대통령을 뽑아 백악관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사로 인하여 이 땅의 동양계 미국인들이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 정치계 이곳저곳에서 활약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현 미국정치계에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손에 꼽을만한 케이스를 꼽으라면, 보스턴 광역 시의원인 샘 윤을 서슴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샘이 보스턴 시장선거까지 출마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9년은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가 창립된 지 19년째 해

Desegregation in Boston School System every time I turned on TV. What was my attitude? Indifference and apathy? I had not paid any attention and thought it had nothing to do with me. Needless to say, my thoughts and attitudes have not been changed until I have my own children. However, I have begun to notice the subtle, hidden discrimination by raising my children and my attitudes started to change.

Then, I had had an opportunity to read the Journal. It had struck me something I had never thought of: Enhancement of Koreans' Political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s an American citizen, I felt this issue was a real and challenging one because even if I have exercised my right to vote, I had not felt the value of my one vote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in this country. Furthermore, there has been no power or voice to represent Asian-American citizens at the Beacon Hill or not even at the local level for many years. If there had been, only a handful numbers.

I have seen the political change in America's as well as Massachusetts' government structures for the past 35 years. The political paradigm is being shifted toward Change. The Election of Barak Obama, the First Afro-American President, is such a historical event that we feel encouraged and can dream about our children's future: someday, one of our Korean-American Children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It is so wonderful to see many Korean-Americans throughout the country being elected to state and local offices. Our own Sam Yoon is the

입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동안 시민협회 에서는 정치인턴 만찬모금과 정치인사무실과의 로비활동을 통하여 37명의 정치인턴 장학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창립 후 매년 발행하는 저널도 벌써 19번째가 곧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역대 이사장님들, 고문님들, 이사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사업 활동들을 달성 시키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 불황과 맞물려 우리 시민협회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시민협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치인턴 배출 - 그들의 연락처 확보와 동문회 조직,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한인미국시민협회와 이곳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새로운 이사와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좀 더 새롭고 더 나은 협회 사업계획을 세워 우리의 사명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의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시민협회의 사명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계획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검토해 봅니다.

#### 1. 정치인턴 동문회

- 인턴들의 연락망, 경보수집, 정치인턴민찬 재조대,
- 그들의 직장과 사회활동 후원, 리더쉽 포럼.

#### 2. 새이사와 회원모집 - 특히 젊은 세대들 초대.

#### 3. 한국계 미국시민권 소유자 Census, 유권자 등록.

#### 4. 미국시민권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가운동과 교육.

#### 5. 정치모금사업:

새운 후보자 지지모금 Party, 타아시아민족 후보자 지지.

끝으로, 편협적인 시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격노하지 말고,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우리의 권리를 표현하고, 우리의 "다른" 얼굴들이 잘 보이도록 사회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오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싶다.

First Korean Asian -American City Council at Large in the City of Boston. Now, he is a candidate for the Mayor of Boston. What a Change and Excitement to experience this phenomenon!

Yes, we have produced 36 interns. We have published 18 Journals. This is the 19th year since the inception of this Organization. However, we are facing the challenge. Where are all these interns? How can we assist them to contribute back to KACL? How to bring more new board and regular members? What other new programs/activities do we install to promote and fulfill our missions? Obviously, we need to look at our missions closely and assess our programs and redefine the future direction.

The following are the activities to be focused on for the next year:

1. Organize the Interns Alumni Network and develop the Support System. This is our utmost goal to bring them back to KACL and to help them work together.
2. Recruit more new board members and supporters
3. Census of Korean-American Citizenship in the Metro Boston Area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since this is an election year.
4. Education and advocacy of exercising the Korean-American Citizens' right to vote
5. The Political Intern Program, Citizens Workshop,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other Asian civic associations and political donations for the candidates will continue.

In closing, I have learned that we should NOT be angry or furious about other people's bigoted opinions or thoughts, but rather, should educate them in a positive way by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together, voicing our rights, being visible in the communities and this can eventually promote Korean-Americans' civic status in this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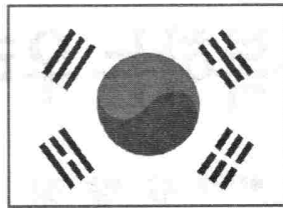
### Kyunghae Kay Lee

1971-1974: B.A. Sociology from Chaminade University, Honolulu,  
1976: M.A. Sociology from Boston College, 1980: M.S. Rehabilitation Counseling from Boston University.

A Board member at NE Korean School, Bentley Family Executive Committee Member and Advisory Board at Asian Civic Association. Lee Associates (Real Estate Brokerage) principal with husband.



시민협회의 제18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 보스턴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총영사 (Consul General) : 김주석 (Kim, Joo Seok)

영사 (Consul): 김인철 (Kim, In Chul)

영사 (Consul): 강철 (Kang, Chul)

영사 (Consul): 이기석 (Lee, Ki Seog)

영사 (Consul): 윤형중 (Yoon, Hyeong Jung)

One Gateway Center, 2nd Floo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Fax: 617-641-2831

근무시간 (Business Hours)

근무일 : 월-금 09:00-12:00, 13:00-17:00

휴 일 : 미국 공식 휴일, 한국 공휴일 일부

삼일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김양길 이사장은 한양 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테네시 대학교 (University of Tennessee) 생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양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홍익 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감기도 하였고 지난 30 여년 동안은 Abbott, Genetics Institute Wyeth Biopharm 에서 Protein chemist 로 근무하고 2004년에 은퇴하였다.

이시안 유니티너 디너 지역 봉사상, 그리고 모범 평등 위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수상한바있으며 지역사회 봉사 경력으로는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사목 회장을 지낸바 있다.

현재는 26차 재미한국 학교 협의회 총회 및 학술 대회 (2008년 7월 17일 19일)를 보스톤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

●이사장/ 김 양 길

희망을 불러온다고 하는 봄이 벌써 저만치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경제관련 뉴스들은 은근히 다가오고 있는 봄을 언짢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그 기미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별 변화가 없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 낙하 중인 경제를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아,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우울한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주위에는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17년간 이어온 장사를 접기로 한 상인이 있어 안타깝지만 합니다. 매섭게 불어 닥친 불황의 칼바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저의 한 고향친구도 오랫동안 경영하던 식당을 닫아야만 했고, 그 외에도 미국에서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국연방 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버냉키 의장은 지난 3월초 한 연설에서 “세계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B 집행부는 금융위기에 맞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으나, 실

업률은 지난 25년간 최고치인 8.1%를 뛰어넘어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지난 3월15일 CBS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오바마 정부가 위기를 맞은 금융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강한다면 미국경기침체는 아마도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는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경해 신임 회장님은 지난 12년 동안 부회장 직책을 맡아 오시면서 시민협회의 온갖 살림을 훌륭히 잘 해내셨습니다. 노련한 경험을 가진 분이기엔 시민협회를 더욱 발전, 번영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정기 이사회 에서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신입이사 5명 전원을 승인, 임명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명의 후보이사를 접촉하고 있어, 올해는 새로 영입된 이사들의 참여로 활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온갖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힘차게 시민협회를 이끌어 온 김성군 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성군 회장님은 부이사장을 맡으시고 내년부터는 이사장으로 봉사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활성화된 이사회와 더불어 신입 회장님께서 시민협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어 가슴 뭉클한 기대감에 기쁨이 큼니다.

협회의 주요사업인 정치인턴 장학 사업을 위한 모금만찬을 호텔에서 해 왔었으나, 너무나 비중이 큰 행사비용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사비용을 대폭 줄이고 장학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행사장을 Lexington Elks Club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작금의 경제 사정을 사전에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일인당 75불씩 받던 입장료도 50불로 내려서 참석하시려는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정치인턴장학생이 배출되어 그들이 우리 한인미국시민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올해는 우리들의 자랑인 샘 윤 보스톤 광역시의원이 보스톤 시장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시장에 당선되어 훌륭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도와야겠습니다. 시민협회는 이러한 일환으로 6월 중에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가능한 많은 정치자금 전달하기로 하였고 보스톤 거주 한인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스톤 광역시, Lexington, Brookline, Newton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유권자 파악 및 도시 별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거 캠페인도 펼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뉴잉글랜드 동포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협력,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주최한 제 26차 한국학 교육 학술대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사흘간 "차세대 지도자교육과 교사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Framingham 소재 Sheraton 호텔에서 750여명의 교사, 강사, 연사들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도 80여명이 참석하였고, 시민협회는 적극적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를 도왔습니다.

본인이 대회 개최 준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성군 전 시민협회회장과 이경해 회장을 도와 3만불 이상을 모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협회는 한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이며, 항상 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원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민협회의 제18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18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n. of Rhode Island

회 장: 이경강  
차기회장: 이동수  
이 사 장: 조봉석  
임원 및 회원 일동

P.O.Box 40504, Providence, RI 02904-0505  
Tel: 401-841-0051 Fax: 401-841-0052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리사

● 매사추세츠 주지사/ 드발 L. 패트릭  
▶ Deval L. Patrick/ Governor, Massachusetts



DEVAL L. PATRICK  
GOVERNOR

TIMOTHY P. MURRAY  
LIEUTENANT GOVERNOR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MA 02133

(617) 725-4000

March 200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congratulate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 valuable community resource, on its seventeenth year of publication.

The Journal provides essential resources and services to the Commonwealth's vibrant Korean community. By providing resources promoting community involvement and citizenship, the League strengthens the Bay State and the bonds between our cultures.

I applaud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and thank them for being actively engaged within their community and Massachusetts.

Best regards,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Deval Patrick".

Congratulatory Message

격려사

● 뉴햄프셔 주지사/ 존 H. 린치

▶ John H. Lynch/ Governor of New Hampshire



JOHN H. LYNCH  
Governor

## State of New Hampshire

### OFFICE OF THE GOVERNOR

107 North Main Street, State House - Rm 208

Concord, New Hampshire 03301

Telephone (603) 271-2121

[www.nh.gov/governor](http://www.nh.gov/governor)

[governorlynch@nh.gov](mailto:governorlynch@nh.gov)

January 23, 2009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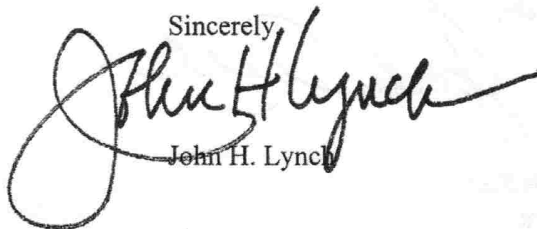
It is a pleasure to join in recognizing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s many contributions to the State of New Hampshire.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League on its 18<sup>th</sup>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is publication has inspired many citizens to take an active interest in enhanc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has long been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mmunities through service, advocacy and education. In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and respect the diverse heritage of New Hampshire citizens. I commend and thank you for your great work.

On behalf of the State of New Hampshire, I wish you all the bes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strengthen our state.

Sincerely,



John H. Lynch

Congratulatory Message



● 커넥티컷 주지사/ M. 조디 렐

▶ M. Jodi Rell/ Governor, Connecticut



**M. Jodi Rell**  
GOVERNOR  
STATE OF CONNECTICUT

February 1, 2009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ssachusetts 02180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Connecticut, it is my pleasure to extend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you celebrate your 18<sup>th</sup> annual journal publication. Since its inception,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s been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inform and educate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With a rich history and cultur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Connecticut and our Nation. I commend the members of this fine organization for their dedication to serv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y providing a consist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ntributes to the democratic process of our great Nation.

Please know that you have m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M. Jodi Rell  
Governor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자

● U.S. 상원의원/ 존 케리  
▶ John Kerry/ U.S. Senator

JOHN KERRY  
MASSACHUSETTS

##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102

COMMITTEES: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FINANCE  
FOREIGN RELATIONS  
SMALL BUSINESS

Tuesday, January 27,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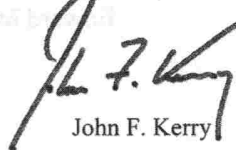
Kyunghae Kay Lee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Dear President Lee:

I am proud to congratulate you on 18 years of success in publishing the annual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Over the last 18 years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in establishing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s led to unbridled success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You have helped in large part to bridge the cultural gap that exists between two nations. Also, the K.A.C.L.'s continued involvement with the community has certainly created a positive presence in and around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Congratulations on your 18<sup>th</sup> anniversary and I wish you many more years of success at the K.A.C. L. N. E.

Sincerely,



John F. Kerry



Congratulatory Message



● U.S. 상원의원/ 에드워드 M. 케네디  
▶ Edward M. Kennedy/ U.S. Senator

EDWARD M. KENNEDY  
MASSACHUSETTS

##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101

January 23, 2009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ssachusetts 02180

Dear Friends: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for publishing the annual KACL-NE Journal. I commend you for meeting such high standards with your Civic Efforts, and I wish you continuing success.

You have earned a great honor for yourself and for the state of Massachusetts. Keep up the good work!

Sincerely,

Edward M. Kennedy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사

● 워싱턴주 상원의원/ 폴 신

▶ Paull H. Shin/ State Senator, Washington



## Washington State Senate

**Senator Paull H. Shin, Ph.D.**

21st Legislative District  
Vice President Pro Tempore

**Olympia Address:**  
407 Legislative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Phone: (360) 786-7640  
Fax: (360) 786-1999

**District Office:**  
19707 64th Avenue West, Suite 207  
Lynnwood, WA 98036-5958  
Phone: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paull@leg.wa.gov

January 9, 2009

Dear Friends,

It is my pleasure to congratulate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NE) on its eighteen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Your long recor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is commendable – I am honored to congratulate you on your 18<sup>th</sup> publication of this journal. I urge you to keep up the good work as I hope to be able to congratulate you for many years to come. Since your inception on August 18, 1990, the KACL NE has encouraged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enhanc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You have become a model for other associations looking to do the same and I encourage you to keep up the good work.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nother successful year!

Sincerely,

Paull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21<sup>st</sup> Legislative District



Congratulatory Message



● 미 연방 하원의원(MA 제4지역)/ 바니 프랭크

▶ Berney Frank/ U.S. Congressman,  
4th District, Massachusetts

BARNEY FRANK  
4TH DISTRICT, MASSACHUSETTS

2252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2104  
(202) 225-5931

29 CRAFTS STREET  
SUITE 375  
NEWTON, MA 02458  
(617) 332-3920

558 PLEASANT STREET  
ROOM 309  
NEW BEDFORD, MA 02740  
(508) 999-6462

THE JONES BUILDING  
29 BROADWAY  
SUITE 310  
TAUNTON, MA 02780  
(508) 822-4796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January 6, 2009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ssachusetts 02180

Dear Friends,

I am very pleased to congratulate you on the eighteenth annual publication of your Journal. America is a country that owes its greatness to the willingness of energetic, entrepreneurial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here and contribute their energy, their talents and their cultures to our country. Immigrants are by nature people who are risk takers and who are ready to work hard for the betterment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country to which they immigrate – the U.S. in our case – is the beneficiary.

Korean-Americans have an enormous amount of which they can be proud in the areas of economic entrepreneurship, and active citizenship.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democracies is an enduring one, and as I look at efforts of which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ud over the years, standing by the Korean people as they resisted tyranny and ultimately instituted a vigorous democracy is high on the list.

Congratulations for all that you do as a community and as a vital part of the mix that makes America great.

  
BARNEY FRANK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 보스톤 총영사/ 김주석

▶ Joo Seok Kim/ Boston Korean Consul General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GATEWAY CENTE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 FAX: (617)641-2831

January 29, 2009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Dear Friends,

It is a pleasant duty for me to offer warm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and its members on the happy occasion of the eighteen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ACL-NE.

The Journal provides us with a glimpse into the activities of the KACL-NE which are to be commended by all, especially by the Korean community in New England. I most sincerely appreciate the many achievements of the KACL-NE as well as the range of activities being undertaken by it, with particular note of the efforts to promot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civic engagement.

The year 2009 bears extraordinary meaning thanks to the inauguration of an African-American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historic development inspires us all to change, to move forward, and to care. It is a huge encouragement for organizations like the KACL-NE.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activities of the KACL-NE and to more and more people joining forces in these activities.

Extending to the KACL-NE deep gratitude for its involvement in the many cause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 offer my wholehearted support and best wishes for success in its future endeavors.

Congratulatory Message

그림자

● 보스톤 광역시의원/ 샘 윤

▶ Sam Yoon/ Boston City Councilor At-Large



**SAM YOON**

**BOSTON CITY COUNCILOR AT-LARGE**

January 16, 2009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yunghae Kay Lee, President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Dear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am truly honored to be included in your eighteen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an elected official and a Korean-American, I commend your organization for its outstanding effort in getting the community civically engaged in the American political process.

With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has realized that if we believe, have hope, and do the best that we can do for our community then making history is possible. Active political engagement sets a foundation for every city, town, and state. Democracy is attainable, if we all work togeth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strong and vibrant one that adds greatly to society. The work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has resulted in more Korean Americans gaining citizenship and expanding into political activism. These accomplishments are remarkable and I applaud your efforts to include more Korean Americans in the political process.

I am very pleased to be associated with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nd if I can be of any assistance in the futur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incerely,

Sam Yoon



# 우리가 샘윤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

## Representative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

**Sam Yoon can represent concerns and issues for Korean communities.**

세탁소 옷걸이 덩핑관세 문제 해결에서 보듯 미국 내 소수민족인 한국사회를 대변하여 주류사회에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인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이미 보스턴을 넘어 전미 한국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입니다.



## Pioneer

**보스턴에서 한국인 최초의 정치인  
First Korean politician in Boston**

모든 정치경력이 아시아인 최초라는 꼬리표가 붙듯이 이전에 한국인으로서 아무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홀로 개척해 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강연회에서도 자신이 보스턴의 첫번째 한국인 정치가 라면 두번째, 세번째는 여러분의 몫이라며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부탁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주류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한인 정치가라는 길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자녀들이 그 길을 쫓아가면 샘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 Vision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Working hard for his vision**

그는 정치경력도 얼마 되지 않고 막강한 정치세력의 뒷받침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한 신념은 오히려 그를 다른 정치인에 비해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의 꿈이 보스턴 시장도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꿈이 없었다면 보스턴 시의원으로 만족하며 살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성공을 뒤로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꿈,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꿈은 우리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 Role Model

**우리의 자녀들이 본 받을 수 있는 성공 모델**

**For our children he can be a good role model**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원을 졸업한 수재가 개인적인 성공의 길보다도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역량의 필요성을 느껴 본인이 직접 그 길로 뛰어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웃사랑의 정신과 확고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Many** of you know Sam from his work as a City Councilor in Boston. Elected to one of the At-Large positions, he has represented the entire city for almost two terms. But there is much more to Sam Yoon. He is a former public school teacher, community organizer and affordable housing developer

school, Sam was accepted to Princeton University. While there, he took a year off to participate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to become a certified teacher in the public schools. After graduating, Sam Yoon took a different route than many of his classmates. Forgoing the high-paying jobs that an Ivy League degree attracts, Sam took a job teaching in a tough, inner-city school. And just like teachers all over Boston, Sam went the extra mile for his students - taking a personal interest in them and buying needed supplies with his own money.

Sam left teaching with an understanding that we need to make fundamental change in our public school system. And that's why he attended the Harvard Kennedy School. Here, he studied not only education reform, but became intereste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affordable housing issues. While still a graduate student, he worked with Roxbury's Dudley Square Merchant's Association to help them earn federal Main Street desig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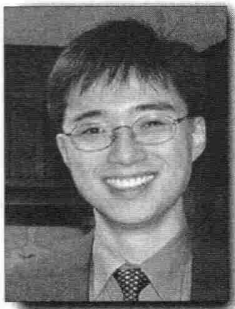
Sam spent the next ten years giving back to Boston, by working with non-profi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Sam's first job was with a group that provides housing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low income seniors. Sam then worked for Community Builders, the country's largest non-profit developer of affordable housing. And later, Abt Associates - a public policy think tank - all the time learning how new ideas could solve old problems.

Sam went on to serve as Housing Director of the Asian Community Development



## Meet Sam !!

by Sam Yoon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who holds a graduate degree in Public Policy from Harvard'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e is a husband to wife, Tina and father to their children, Nathan and Naomi, who both attend the Boston Public Schools. He is an elder at his church, which he helped to found.

Sam has always been aware of the personal sacrifices that his parents made for him and his siblings. Like so many Irish, Italian, Hispanic and Asian immigrants before him, Sam's parents moved to America because of the opportunities our country offers. Leaving their home in Korea when Sam was just ten months old, they wanted what all parents want for their children - a good educ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Corporation. It was here that he became involved in serious community organizing. His years working with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aught Sam many lessons - that it takes more than spreadsheets and meetings to get things done - it takes the grueling work of organizing, bringing together community members, elected officials and power brokers to turn ideas into reality.

Sam's years working with these non-profits taught him that politicians could make a real difference in people's lives and, more importantly, that there were very few people with his background and experience who sought elective office.

It was because of this that, in 2005, Sam decided to bring his skills i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o a run for an At-Large seat on the Boston City Council.

The pundits and the politics-as-usual crowd gave Sam no chance of winning. He was running against entrenched incumbents, as well as the children of two former mayors and the son of a Secretary of State.

He had not played ball with the political insiders and "earned" his shot at office. But Boston voters thought differently. His message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good government resonated with Bostonians and he handily won one of the At-Large council seats, despite being vastly outspent by his opponents. Two years later, he easily won re-election.

As a Councilor At Large, Sam did what he had been doing his whole life - working to bring communities together for positive change. Sam has been an outspoken advocate for better civic engagement in municipal government. His first move was to bring City Hall closer to his constituents. Realizing that people were unaware of the city's budget process, he held meetings in every Boston neighborhood to explain the budget - and to seek input from those it affected directly. He then went on to do a series of email surveys before every budget hearing to receive further public input. He also fought hard to try to re-establish the Boston Youth

Commission, and organized hundreds of young people to attend a budget hearing at City Hall.

Despite the limitations of being a city councilor in a strong-mayoral form of government, Sam has already made his mark on Boston in just three short years. From securing property-tax relief for seniors to saving the jobs of security guards at public housing to introducing innovative crime prevention programs like 'Nickel for Public Safety' and getting young people involved in their city and their government, Sam's record of achievement as a councilor has distinguished him as a new kind of leader for Boston.

Now Sam Yoon is running for Mayor to bring the change that Boston needs and to move the city into the 21st. century. He knows that we must face our problems head on and be willing to be bold, innovative and creative.

Sam lives with his wife, Tina, son, Nathan, and daughter, Naomi, in the Field's Corner neighborhood of Dorchester.

## 시장후보 샘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샘윤 후보의 보스톤 시의원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주의원(全州議員)(At-large position)으로 선출되어 연임까지 하면서 보스톤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직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및 주택계획개발자이기도 한 그는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행정대학을 졸업한 재원입니다. 한 여자(티나)의 남편, 또 두 자녀(나단과나ومی)의 아버지이며, 창립멤버로 되어있는 교회에서



들과 일하면서 윤 후보가 배운 것은 참 많았습니다. 그가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엑셀시트 작성과 회의진행이 아닌 실제적인 조직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일원과 당선 의원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과 일하면서 윤 후보는 정치인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과, 더 중요하게는 그와 같은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피선거인으로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으로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해 당선들의 희생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이민자, 히스파닉 그리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처럼 윤 후보의 부모님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만10개월 된 갓난아기인 윤 후보를 데리고 한국 땅을 떠나면서, 그들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그들의 자녀 또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윤 후보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재학시절 공립학교에서 대리교사로 활동하기 위해 1년 간 휴학을 하고 교사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 후 윤 후보는 대부분의 친구 동창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위로 갈 수 있는 고소득 직장을 다 마다하고, 대도시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교사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보스톤의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하듯, 윤 후보 또한 학생들을 위해 더 헌신했습니다.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비로 필요한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립학교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행정대학에 진학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및 저렴한 주택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에 이릅니다.

그는 대학원생 시절 록스버리의 더들리 스퀘어 상인 연합과 일하면서 그들이 연방 정부에 의해 메인 스트리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그 후로 10년 동안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과 일하면서 보스톤에 환원합니다. 윤 후보가 처음 일한 곳은 정신병 환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거처를 제공해주는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커뮤니티 빌더"(지역사회 건설자)라고 하는 저렴한 주택개발자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비영리단체에 몸담았습니다. 또 그 후에는 ABT 어소시에츠라는 공공정책두뇌집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후 윤 후보는 아시아계 지역사회 개발조합의 회장을 역임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지역사회 활동에 진지하게 관여하게 되지요. 지역기반 단체



이러한 이유로 그는 2005년, 그의 의사소통 및 협동 능력을 가지고 보스톤 시 전주(全州) 시의회 의원(Boston City Council At-Large) 선거에 입후보하게 됩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정치인 무리를 볼 때, 이 선거는 윤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상대에는 전직 시장의 자녀가 둘이나 있었고, 국무 장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계의 내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공직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톤의 유권자들은 달랐습니다. 윤 후보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과 좋은 정부 만들기에 대한 유세는 공감을 샀고, 그의 상대들보다 훨씬 적은 투자를 했음에도 대표의장 자리를 쉽게 차지했습니다. 2년 후 재선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톤 시의회 의원(Boston City Councilor At Large)으로 윤 후보는 그가 평생 동안 하던 일, 즉,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윤 후보는 시민의 정부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시청사를 선거구민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보스톤 시

예산책정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보스톤 지역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산 책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 습니다. 더 나아가 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메일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보스톤 청년 위원회를 재건하고자, 수 백 명의 보스톤 청년들을 시청에서 열리는 예산청문회에 초대하는 등 갖은 노력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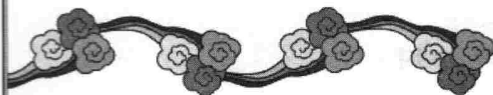
시장 중심의 정부에서 시의회 의원의 역할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스톤에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재산세 면제, 공영 주택 경비원들의 일자리 보장,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한 혁신적인 '안전을 위해 5센트 투자하기(Nickel for Public Safety)'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젊은이 들의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윤 후보의 시의원 활동 경력은 그를 보스톤 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로 부각시

키고 있습니다.

이제 윤 후보는 보스톤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또 보스톤을 21 세기로 나아가게 하고자 시장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직접 부딪히면서 대담하게,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면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아내 티나와 아들 나 단, 딸 나오미와 함께 도체스터 지역의 필즈코너에 살고 있습니다

## 2009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March 5 1st Board Meeting  
2009년 1차 이사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티켓과 초청장 배부

April 25 AFD (Annual Fundraising Dinner) for Young Political Interns  
정치인턴 모금 만찬 (장소: Lexington 소재 "Lexington Elks Club")

June 20 2nd Board Meeting and Citizenship workshop  
2차 이사회 및 시민권 취득 워크샵

September 24 3rd Board Meeting  
3차 이사회

October 24 Annual Meeting and Citizenship Workshop  
경기총회 및 시민권 취득 워크샵

November 4 Election Day  
미국 모든 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 NE 시민협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선거인 등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회의: 총회 1회, 이사회 3회, 상임이사회 및 상임 임원회 3회, 편집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2. 출판 및 홍보: 회지 발간 1회, 뉴스레터 발간 1회, 매체 등 각종 홍보 활동
3. 캠페인: 각종 캠페인 4회 이상 (투표, 유권자 등록,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기타)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2회 (6월 및 10월)
5. 기금 모금: 정치 인턴 후원 모금 파티 (2009년 4월 25일)
6. 뉴잉글랜드 도시별 한인 미국인 유권자 데이터 시스템 완비
7. 여타 단체와의 유대: 전국 대회 참가, 여타 소수 민족 회의의 참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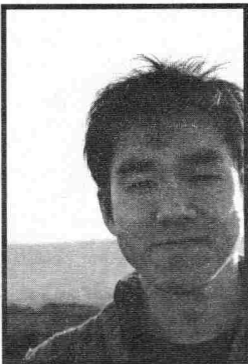
#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 Beyond the Clues

### 실마리를 넘어서서

최근 급격한 비농가 노동자 고용율 하락세에 맞물린 미국의 실업률이 8.1%에 달하고  
서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의 분노가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기업가들의 사치스런 생활 패턴에  
투명성이 더해지는 것에 맞물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모두의 마음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명백한 의문은  
“도대체 이런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다.

글: 김철 (Terrence C. Kim)



### Terrence C. Kim

started his career as a derivatives trader and had spent the past 13 years in the financial sector working for some of the industry leading asset managers and investment banks in US and Europe.

Kim previously worked as a Director at StreamBase Systems responsible for developing the overall product strategy, identifying market requirements and continuing to develop StreamBase frameworks for capital markets. Kim also ran global product management for ITG Net division of the Investment Technology Group. He has also served in senior management positions at State Street Global Markets, WestLB AG, and Wellington Management Company, LLP streamlining electronic trading workflow, building and implementing next generation trading strategies.

### What happened?

With the most recent February non-farm payroll employment continuing to fall sharply and the US unemployment rate hitting 8.1%, the true impact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es to the ordinary people is slowly surfacing. As the anger subsides from the ordinary people along with somewhat of an added transparency to the extravagant life style and truth behind the high flying executives and those on Wall Street, the obvious question that seems to linger on everyone's mind seem to focus on just how this financial crisis happened.

In short, this did not happen overnight or during the past few years under George Bush's administration as some



might want to believe. The root of this actually goes far back to the final years of Clinton in the White House with the republican congress in control and the end of the last known bubble, the dotcom bubble. December 15, 2000 was especially a tense time. President Bill Clinton and the Republican controlled Congress were locked in a budget showdown. As the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were trying to hammer out the \$384 Billion omnibus-spending bill, there was an additional 262 page measure called the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This act was sold as something that would protect the financial institutions from overregulation and help position our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to be world leaders into the new century. In layman's term this allowed the birth of the Credit Default Swaps and neither SEC nor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would regulate this newfangled financial product. Credit Default Swap in simple terms provide insurance in case of default or losses on certain securities.

This act was supported by Fed chairman Alan Greenspan and Treasury Secretary Larry Summers and thus created a massive USD \$62 trillion worth of unregulated market that was nearly four times the size of the entire US equity market. To put the \$62 trillion in context, the US GDP as of 2008 is estimated at \$13 trillion and the US mortgage market is approximately \$7 trillion.

This Credit Default Swap later played key to the growth of the out of control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business that crippled AIG, wiped out the previous four years of profits for UBS and resulted in the demise of the other once famous investment banks such as Bear Stearns and Lehman Brothers, CDO also forced Merrill Lynch to be acquired by Bank of America along with Goldman Sachs and Morgan Stanley to become a bank holdings company and ceased to exist as once glamorous and prestigious investment banks.

The media first picked up on this story on October 31, 2007 when Meredith Whitney a relatively unknown analyst from Oppenheimer Securities division broke the news. Meredith predicted that Citigroup had mismanaged its affair to the point where Citigroup would need to slash its dividends or go bust. An analyst whom basically no one had ever heard of had basically shaved \$369 billion off the value of financial firms in the market. Four days later Citigroup C.E.O. Chuck Prince resigned and in January 2008 Citigroup slashed its dividend.

There were earlier insights to this sub-prime mortgage matter that were mostly overlooked. In 2004 there were few minorities who started to notice the unhealthy behaviors by the lenders of U.S. housing market. Large number of firms was basically lending money to people who should not have been borrowing it in the first place. Those few with these earlier insights at the time thought Alan Greenspan's decision after the .com bust to keep the interest rate to 1% will at some point have a terrible day of reckoning.

The simple measure of sanity in housing price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median home price to income. Historically this ratio was at 3 to 1. By late 2004 this ratio rose nationally to 4 to 1. In some cities the ratio was as high as 10 to 1 for Los Angeles and 8.5 to 1 for Miami with the market dominated by speculators who had no intention of keeping the homes in the first place. The other disturbing fact besides the ratio was the proportion of the repackaged mortgage bonds or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 In 2000 there had been approximately USD \$130 billion in sub-prime mortgage with \$55 billion of the sub-prime repackaged as a mortgage bonds. However in 2005, there was approximately USD \$625 billion in sub-prime mortgage with USD \$507 billion of the sub-prime that some how found its way into the mortgage bonds.

Most people don't realize that the fixed income market is much larger than the equity market. The equity world is fairly small compare to the overall fixed income market. And in case anyone is wondering Foreign Exchange market is by far the largest. It's larger than the equity and fixed income market combined.

As everyone is trying to assess the overall mess, one thing I'm still baffled at is how these BBB tranche bonds when repackaged suddenly became AAA rated bonds. One can't help ask where the rating agencies were in all of this.

---

While trying to dodge the blame, the bottom line was that this was a colossal failure of judgments by executives at highly regulated banks that over leant and oversight of the regulators and the politicians. We all had our hands in the cookie jar.

Investment banks have been squeezed for profits for quite some time. With lower advisory fees and commissions from their traditional line of business, most of these investment banks used heavy leveraging (some as high as 200 to 1) and proprietary trading as the growth engine to generate the overall revenue. Goldman Sachs at one point generated 46% of their revenue from their own proprietary trading business, thus Goldman Sachs before it became a bank holdings company many in the inside considered Goldman Sachs as nothing more than a large hedge fund. As they have done it in the past, Wall Street needed to reinvent the way they made money.

## What is next?

As the new reality slowly settles into those in Wall Street to Main Street, we all seek for clarity and transparency but the reality is that none of us are sheltered from this non-sense.

The next area where we need to take a closer look is at America's largest trading partner, the European Union or EU. The economic problem in Europe is diverse as its 27 members ranging from massive decline in export to anemic consumer consumption to property bubbles. Although there are companies that have not been scathed from this yet no one in their right mind will believe that anyone will be immune from this mess. As Europe fears for next Iceland, Eastern Europe & European economy will most likely come out with the next big losses and crisis that could further hamper and exacerbate the already low level of confidence.

The region is suffering from its first major depression like recession since the launch of the Euro. Europe is slightly different from US when it comes to the sub-prime mortgages.

The European banks did not necessarily write sub-prime mortgages, but instead they financed the sub-prime nations in the EU zone. Austria, Belgium, Germany, Italy and Switzerland allowed the huge growth in the Europe's poorest countries by lending and financing the mortgages of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For example during the boom some of these mortgages were made in euros and Swiss francs. When the Hungarian forint and Romanian leu began plunging with the downturn of the economy, the cost of repayment more than doubled. The overall exposure was no longer limited to the actual debt itself but also accounts the foreign exchange risk.

Unlike the American economy where credit card happy consumers were fueling the growth EU is economically wired differently. Good part of the drive is from export. Classic example is the car industry. It is estimated that 3/4 of the cars made in Germany is exported. BMW, Mercedes, and Volkswagen rely o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the parts needed to assemble their cars. In the mountains of Transylvania iron has been forged since the Roman times. Romania and Bulgaria the two poorest nations in the EU relies heavily on Steel exports.

To put this in layman's perspective, in today's global economy, the survival of Romania and its steel production is heavily dependent on Chinese factories consumption of German heavy machineries.

## What is the outlook for the US Dollar?

Dollar will remain strong for the remainder of 2009 and possibly into 2010. Meanwhile the emerging market currencies will remain weak including Korean Won. Until there are signs of recovery, dollar will inadvertently remain strong. During the difficult times people tend to cling on to what they deem as safe and unlike other asset classes foreign exchange are

always traded in pairs, meaning you need to sell one to buy the other currency.

Despite the strength of Euro the reality is that close to 64% of the reserved currency in the world is held in US dollars. The Euro only comprise in the 20-24% range as the reserved currency. This is mostly credited to the Bretton woods summit in New Hampshire in July of 1944 that created the IMF, World Bank, and virtually allowed US Dollar to replace Gold as the reserve currency. Chinese yuan being pegged to the US dollar and China being the largest purchaser of US Treasury, it'll be some time before Dollar is truly "diversified" as the reserved currency.

Another reason for the strength in dollar is the crude oil. Crude oil is mostly traded in US dollar.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is comprised of the Persian Gulf states of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The GCC is planning to break the dollar peg in 2010 by creating a unified currency for the region. Until this happens US dollar will remain as the instrument of trade for crude oil.

## Lesson to be learned

Cash will remain as the king and investment should be made very carefully. Be conservative with expansions and expect contraction in the economy and the spending habits of average American.

The amazing part about the market is that the market will always humble you. Everything we've learned in the past decade or two at some point won't matter anymore and the market will chart new course to uncharted waters. Simple example is the current equity market. In a typical recession when consumer stocks show strength weakness will appear in rails or mineral stock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anymore. Utility stocks are no longer a safe haven. Insider buying is no longer a reliable indicator. And some of the greatest investors we know such as Warren Buffett have been wrong as well. In uncharted waters, none of what we learned in the past applies. Despite market clearly being oversold there still room to fall further.

### There are few things that are cl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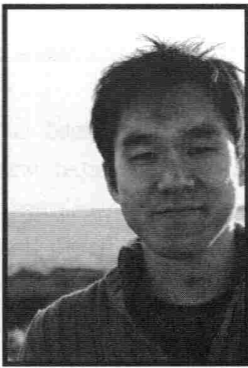
1. In order to get out this crisis, the banks need to be back on their feet before any recovery occurs.
2. The same folks who are calling the bottom are the same folks who didn't see this coming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not be an overnight clean up process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just like any other in the past will make mistakes, this is inevitable nature of human being.
3. Unemployment can hit double digits and recovery may not occur on 2010.
4. Some of the greatest wealth in this country was create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thus this turmoil will also bring new opportunities.
5. Despite the current turmoil, Wall Street once again will reinvent itself as it has in the past.
6. In time we will come out of this but until this happens expect and prepare for the worst.

The bottom line is that no one really knows how to get us out of this mess.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will make mistakes in its policies whether or not the media portrays them. One thing the market does not like is the uncertainty but that is all we have to start with at this point. Anger among ordinary people is real and growing and will grow for some time to come. The latest Merrill bonus figures paid out last year probably won't ameliorate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at some point we will move beyond this current crisis and the global economy will once again prove resilient despite the potential long-term systematic downturn until the catalyst.

#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 Beyond the Clues 실마리를 넘어서서

글: 김철 (Terrence C. Kim)



### Terrence C. Kim

Terrence C. Kim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파생상품 증권업자로 일을 시작했으며 지난 13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금융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산 경영자들, 투자은행들을 위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Kim은 최근에 StreamBase Systems의 전반적 제품전략팀의 총책임자로 일하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StreamBase-구조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Kim은 또한 Investment Technology Group의 ITG Net Division에서 글로벌상품경영팀을 운영하였습니다. Kim은 State Street Global Markets, West LB AG, 그리고 Wellington Management Company, LLP등의 금융회사들에서 경영임원으로 맡아 전자거래작업량을 늘리고 차세대 거래전략을 짜고 수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근 2월 한 달 동안 급격한 비농가 노동자 고용율 하락세에 맞물린 미국의 실업률이 8.1%에 달하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의 분노가,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기업가들의 사치스런 생활 패턴에 투명성이 더해지는 것에 맞물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모두의 마음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명백한 의문은 도대체 이런 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금융위기는 하룻밤 사이의 일이 아니며, 소수가 믿기 원하는 것처럼 조지부시 미국 전 대통령 임기기간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금융위기의 시초를 찾는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기간 동안의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하던 미국국회, 그리고 마지막 거품경제 시기인 닷컴거품경제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12월 15일은 특히나 긴장된 시간이

- 1 기업의 부도위험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 거래.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B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자본시장(JP모건)이 신용위험에 대한 수수료(프리미엄)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사 역할을 한다. CDS는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이기 때문에 CDS거래의 건수 및 양이 많아져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JP모건의 블라이트 마스터스 글로벌상품 부문 대표가 1997년 개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했다.
- 2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자본시장의 질서유지 및 규제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의해 1934년에 설립된 증권감독관청.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유가증권과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한다.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기업재무국·시장규제국 등 11개 부·국을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① 기업공시의 철저한 이행 ② 상장증권의 등록 ③ 대주주의 주식취득 조사 ④ 거래원의 등록 및 자격 취소 ⑤ 공익성이 강한 전기·가스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다.

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국회집권당인 공화당은 예산안을 건 국면에 갈려있었다. 국회와 백악관이 삼천 팔백사십억 달러에 달하는 총괄적 예산안인 Omnibus-spending Bill을 짜내고 있을 당시, 그와는 별개로 262페이지에 달하는 안전안인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가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 안전은 금융계를 정부의 과도한 제제로부터 보호하며 더 나아가 미국의 금융 서비스계를 새로운 세기의 글로벌 리더들로서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s)1)의 탄생을 허용하였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2)와 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3) 둘 중 어느 규제단체도 그러한 신행 금융제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신용부도스와프가 하는 역할은 어느 특정한 담보물이 그 가치를 잃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제공이다.

이 법안은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US Federal Reserve Board)4)의 의장 앨런 그린스펀과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에게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그결과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62조 달러가치의 거대한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자그마치 미국 전체 금융시장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62조 달러의 규모를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2008년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5)량은 13조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사이즈는 약 7조 달러이다.

이 신용부도스와프는 나중에 채무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6)이 시장의 무분별한 신장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후에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의 부도를 불러왔으며, 스위스연방은행(UBS: Union Bank of Switzerland)7)이 4년 연속 흑자를 냈었던 그 영광마저도 말끔히 앗아갔고, 그 외 다른 유명한 은행들(베어스텐스와 레흐만브라더스 등)을 소멸로 몰아갔다. 이 신용부도스와프는 또한, 그 유명한 메릴린치가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인수당하도록 상황전개를 이끌어 갔으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예전의 그 화려했던 명성을 가진 투자은행에서 지주회사(holding company)8)로 바뀔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다.

미디어에서는 이 내용을 처음 2007년 10월31일자로 기사를 냈었다. 이 기사는 Oppenheimer Securities division의 메레디쓰 워트니라는 무명의 애널리스트의 입에서 나왔었다. 메레디쓰는 씨티그룹이 이제껏 그들의 자산을 잘못 운영해 왔으며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

- ③ 이는 1974년의 선물거래위원회법에 의하여 1974년에 의회에 의해 창설된 독립된 연방기관이며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의 규제감독기관이다. CFTC는 상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며 한 정당으로부터 3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FTC의 주요 권한으로는 선물거래소의 등록 및 인가, 상품시장의 승인, FCM이나 FB의 등록 및 인가, 거래소 규정의 인가, 트레이더와 투자자 간의 이익 분쟁, 비사조지권 등이 있다.
- ④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운영기관이며 의장 이하 7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공적할인율, 예금준비율의 변경 및 공개시장조작, 연방준비권의 발행과 회수를 감독한다. 이사 전원과 뉴욕연방은행 총재 및 다른 지구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4명을 합하여 모두 12명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구성, 공개시장조작 방침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뉴욕연방은행이 행한다.
- ⑤ 국내총생산, GNP(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순정한 국내경제활동의 지표로 쓰여진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것으로 각 부분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동양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영국, 독일 등 GNP 가운데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많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국내경제활동의 동양을 조사하려면 GNP보다도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4/4분기부터 국가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대신 GDP를 사용했다. 하지만 GDP 통계는 당해 연도 또는 분기가 끝난 후 상당 기간(약 2~3개월)이 경과한 후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신속이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거나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기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경제지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 ⑥ 모기지 저당 증권 등 위험정도가 다른 여러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파생금융상품, 자산담보부증권 또는 채권담보부증권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자산담보부증권이라는 용어로는 ABS(Asset-backed Securities)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무담보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우량대출인 프라임(prime)과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sub-prime)으로 나누고 그 중간 단계를 '알트 A'로 분류한다. 한국식으로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가 된 것은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이 2007년부터 하락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한 금융회사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들어 시장에 매각했다. 이런 MBS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하나의 증권을 만든 것이 바로 CDO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 ⑦ 1998년 6월, 스위스 연방은행과 스위스 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위스의 금융 그룹이다. UBS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부문, 웰스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부문, 글로벌 자산운용(Global Asset Management) 부문, 기업(Corporate)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와 기업금융, 금융과 문화상품을 결합한 아트뱅크(Art Banking)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 ⑧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 자회사의 지분 평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야 한다.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 )시켜 기업합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것이다. 후자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지주회사라고도 한다.



당금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무너지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재계의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일개 무명의 애널리스트가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금융 기업들중 하나인 시티그룹의 가치를 삼천육백구십억불 낮추어 책정한 셈이다.

나흘 뒤인 2008년 일월에 시티그룹의 최고경영자 척 프린스(Chuck Prince)가 사임하였고 시티그룹은 배당금의 사이즈를 대폭 줄였다.

이전부터 이 섹프라이임 사태에 관한 우려의 소리는 있어왔으나 대부분은 경제계에서 간과되었다. 2004년에는 몇몇의 경제학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대출기관들의 안전하지 못한 방침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곤 했다. 많은 숫자의 대출기관들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서는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하여 돈을 대출해주었다. 이를 간과한 당시의 그 소수의 학자들은 앨런그랜스펀의장이 닷컴버블이후 금리를 1%로 동결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언젠가 끔찍한 응보를 받게될것이라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정상인가를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메디안 집 가격과 가계수입의 비율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3대일 이었다. 2004년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 비율은 4대 1로 오르게 된다. LA나 Miami등, 집을 사서 보유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투기꾼들이 입김을 가하는 부동산 시장들은 이 비율이 10대 1이나 되곤 했다. 이 비율이의 경제에 해로운 또다른 요인으로는, 재포장된 저당(저당권: mortgage)채권의 비율, 또는 채무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비율 이다. 2000년 일 년 동안에는 천삼백억 불 상당의 섹프라이임 모기지가 (그중에 오백오십억 불어치가 모기지 채권으로 재포장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자그마치 육천이백오십억불 상당의 섹프라이임 모기지가 (그중에 오천 칠십 억 불어치가 어떻게든 모기지 채권으로 둔갑 하게되어) 금융시장에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수익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른다. 주식세계는 고정수익시장보다 그 규모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혹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크기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방대하다. 외환시장의 사이즈는 주식시장과 고정수익시장을 합한 사이즈보다도 훨씬 거대하다.

모든 사람들이 현 경제공황의 크기를 가늠해보려 하는 이때에 여전히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실은 어떻게 이런 B급 채권들이 재 포장후 A급 채권들로 둔갑할 수 있었는가 이다. 혹자들은 이런 상황들이 진전되는 동안 금융상품 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들을 쏟아낼 것이다. 누군가가 쏟아지는 비난들을 회피하는 동안 최소한 짐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 비극은 강력한 법의 제제 하에 운영되는 은행 경영진들이 어마어마한 과실로 인하여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런 상황이 감사기관들과 정치인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이 달콤한 과자단지에 손을 넣고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투자은행들은 이제껏 오랜 세월동안 이윤창출을 위하여 상당한 압력을 받아왔다. 낮은 자문비와 수수료로만이 운영이 가능했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유지하던 투자은행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하여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으며 레버리징과 (몇몇 은행들의 레버리지비율9)은 200대 1에 달하였다) 프로프라이터리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10) 을 전체세입을 키우기 위한 주 성장엔진으로 사용하였다. 골드만삭스는 한때 자기업 세입의 46%를 이 프로프라이터리 트레이딩 사업으로 벌어들였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지주회사로 바뀌기 전까지 재계에서는 골드만삭스를 거대한 헤지펀드11)라고들 부르곤 했다. 과거에 했던것 처럼, 월스트리트는 돈 버는 방식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9)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타인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 유동성 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비율이며, 부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동성비율은 단기 채권자의 재무위험을 측정함에 반해 레버리지 비율은 장기 채권자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①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본은 채권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낸다. 소유자가 총 자본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업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소유자는 일정한 투자만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③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기상황에 따라 세무손익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투자위험이 증대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높은 레버리지 비율은 도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0) 투자 자금을 위탁 받거나 위임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으로 혹은 개인 본인의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

11)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자본을 말한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98년 중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 국가는 자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헤지펀드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는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워킹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 5백만달러의 거래를 최소 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사모한다. 이러한 사모방식으로 투자자금을



## 그렇다면, 이다음엔?

우리가 자세히 들여 보아야 할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교역 국가들이 모여 있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다. 유럽의 경제적 문제는 그것의 27멤버국가들의 수만큼, 수출의 급격한 감소, 허약한 소비자의 소비량에서부터 재산버블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경제난에서 털끝하나 재정적 피해를 겪지 않은 회사들도 몇몇 있지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경제난 속에서 누구나 무사할 것이라곤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제2, 제3의 아이슬란드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유럽경제의 전망은 언제 어디서 또 다음 도산의 물결이 쏟아져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악화시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 화폐개념인 유로가 상용화 된 후로 유럽연합은 그의 첫 불황을 겪고 있다. 섹프라이임 모기지에 관한 유럽연합이 겪는 문제는 미국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내의 은행들은 섹프라이임 모기지를 시장에 내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은행들이 유럽연합내의 섹프라이임 국가들에게 돈을 대준 것은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태리, 그리고 스위스는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등 비교적 가난한 국가들에게 모기지와 돈을 대주는 방식으로 거대한 경제 붐을 일으켰다. 한 예로, 그 경제 붐 동안에 이 모기지들의 일부분은 유로와 스위스의 프랑으로 제공되었다. 헝가리의 화폐 포린트와 루마니아의 레우의 가치가 경제난이 시작됨과 같이 곤두박질 칠 때에 이 두 국가들의 상환가격이 갑절이상이나 꺾어지게 되었다. 전체적인 노출은 그 부채 자체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환이 가지는 위험부담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시스템은 신용카드를 사랑하는 소비자가 경제성장의 큰 엔진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경제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들 중의 하나는 수출이다. 고전적인 예는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독일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들중 4분의 3이 해외로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BMW, Mercedes, 그리고 Volkswagen은 동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부품공장들에서 공정에 필요한 부품들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역의 트란실바니아 산맥에서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철을 생산해 왔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전적으로 철 수출에 그들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글로벌 경제세계에서 루마니아와 그의 철강 산업은, 독일의 중장비들을 사들이는 중국의 공장들의 흥망에 그 성사가 달려있는 셈이다.

## 미국달러의 미래는?

미국달러는 남은 2009년 동안 계속하여 강세를 보일 것이며 이 강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국가들의 화폐가치는 계속하여 약세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전까진 미국달러는 여전히 그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기 마련이며 여러 종류의 자산 중에도 외환은 그 특성상 외환은 언제나 쌍쌍이 거래된다는 것이다; 한 통화를 사기위해서는 다른 통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로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의 준비은행에 보관되어져 있는 화폐들 중 64%는 미국달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로가 이 준비은행금고들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25%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1944년 7월 뉴햄프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던 브래튼우즈 협정에서 준비통화를 금에서 미국달러로 바꾼 것에서 시초한 현상이다. 중국의 유안이 미국달러로 연계환율(13)을 쓰고 또, 중국이 미국채권의 최대 보유국인 것을 가만할 때에, 미국이 진정한 세계의 준비통화로서 그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건 시간문제라 보인다.

모집하고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달러가 넘는 퀴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⑩ 1945년 12월 발효된 브래튼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을 말한다. 1947년 3월에 업무를 개시했다. 세계은행이 장기 금융기관인데 비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다. IMF는 세계경제의 확대 균형, 개도국의 소득 수준 향상, 고용 확대 등을 일반 목적으로 하나 그 구체적 목적과 기능은 협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환시세 안정, 환제안 철폐 즉 환의 자유화, 개도국이 단기적 국제수지 불균형에 빠졌을 경우 외화 자금 공여 등에 있다. 한국은 1955년에 가입했으며, 2007년 현재 회원국 수는 185개국이다. 한국은 1997년 11월 금융권 부실과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IMF에 긴급 국제금융을 요청해 지원받은 바 있다.

미국달러강세의 또 다른 이유는 석유에 있다. 대부분의 석유는 미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14) 는 미 달러로만 석유가 거래되는 것에 중지부를 찍기 위하여 2010년부터 그 지역의 통합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하도록 결의를 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미 달러는 석유시장의 한 통화로의 위치를 지킬 것이다.

## 여기서 숙지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현금이 왕이다’ 라는 개념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의 모든 투자는 면밀한 고심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영역 확대 시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경제수축과 중산층 미국인들의 줄어든 소비습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여러 경이로운 점들 중에 하나는 이 현대의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근 십년에서 이 십년 사이에 배운 모든 것들은 이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며 이 시장은 아직 아무도 향해 해보지 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단순한 예로 외환시장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불황기간에 만일 소비자 주식이 강세를 보일 때, 약세는 철도나 광물주식에서 나타나는 게 상례다. 하지만 이 패턴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게 못된다. 공익사업체 주식(Utility Stocks)들은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보장하지 못한다. 내부자매수(Insider buying) 동향은 더 이상 믿음직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천재적인 투자자들, 그 대표격인 워런버핏도 투자자에게 동향을 제시하는 데에서 종종 틀려왔다. 이제껏 누구도 향해하지 못한 이 새로운 바다엔, 이제껏 우리가 실제로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확실히 전반에 걸쳐서 모든 제품들의 과잉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상황에서도 훨씬 더 밀로 곤두박질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 확실한 사실들은:

1. 현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는 은행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난국의 상황에서 말바닥을 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 자신들이 처음부터 지금 이 상황이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있을 경제회복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만한 것이 되지못하며 예전정부의 수뇌들처럼 현 정부도 역시 실수를 할 것이다; 이것은 안락이기에 어쩔 수 없이가 되는 약점이다.
3. 현 실업률은 두 자리 수로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2010년 내년 안에 경제회복이 시작되리란 보장이 없다.
4. 지금 이곳 미국의 최고 갑부들 일부의 전설적인 부는 1929년도의 대공황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현 경제적 재난이 모두에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5.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윌스트리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을 변화시키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6. 언젠가 우리는 이 경제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결론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현재 이 상황에서 곤두박질하는 우리의 경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경제 관련 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그 외 재계 인물들은 임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실을 또 범할 것이다. 자본주의시장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불확실함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 사이의 분노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얼마동안은 그 강도가 커질 것이다. 작년 메릴린치에서 지급된 보너스의 양이 현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글로벌 경제는 장기간 동안의 그 구조적 불황에 자극제가 가해질 때까지 다시 한 번 그 복원능력을 증명할 것이다.

⑮ 연계환율제도 ("pegging system"): 변동환율제도와 달리 일국의 통화 가치가 다른 통화와 고정되어 있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연계된 통화와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나 연계된 통화 자체는 여러 통화에 대하여 변동하게 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결과가 된다. 연계방법으로는 특정 통화에 연계하는 특정 통화연계, SDR 등 복합 통화 바스켓에 연계하는 복합 통화연계, 연계 환율 제도의 보완 조치로 연계율을 단기간·소폭으로 조정하는 gliding peg 등이 있다.

⑯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이다. GCC 6개 회원국은 초기에는 안보 측면의 협력이 주요 목적이었다. 실제로 이들 6개국은 공동방위군을 편성하고 있으며, 1991년 걸프 전쟁시에는 이라크를 상대로 합동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GCC는 설립 이후 경제협력에 더 큰 관심을 두어, 1982년에는 통일 경제연합을 조인하여 이후 6개국의 역외관세를 통일했고, 6개국간의 인력, 상품, 자본 등의 이동을 거의 자유롭게 했으며 1999년에는 2005년부터 관세동맹을 출범 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2003년 1월 1일부터 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출범시켰으며, 2007년 공동시장 창설하였다. 2010년까지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가입되어 있다.

## 경제와 환경의 관계: 상충인가, 보완인가?

#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Environment



윤은상 교수 (U. Mass Lowell 경영학)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의 조사부의 국제경제연구원의 동향분석실에서 근무했으며, 1978년에 도미하여 Georgia 대학에서 MBA를, Pennsylvania 주립대학에서 Market-entry Timing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Andover에 거주하며, U Mass Lowell의 Marketing 정교수로 Sustainable Innovation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향과 거리가 두 변수로 교차하는 Golf에 매력을 느끼고, 실리와 세력의 균형이 형세를 좌우하는 바둑을 취미로 즐깁니다.

**경기 침체**의 현실과, 악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회복의 노력에,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경제상황이 부침과 순환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것을 익히 알면서도, 당면한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100여년의 험겨운 이민 역사를 이루며, 미국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유사합니다. 정착과 안정을 위해 온 정열과 시간을 몰입하다보니, 2세대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상조에 소홀하였습니다. 시간과 능력의 제약 속에서, 단기적인 욕구와 장기적인 목적을 함께 이루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충하는 이해와 목표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꾀하려면, 올바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목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Timing 문제를 연구하며,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충과 보완관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인류사를 통하여 공통욕구가 되어온 “경제의 성장”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인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계를 다룬 필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 또는 소망과 단기적인 필요 또는 욕구의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Environment

Sustainable economies are expected to equitably meet human needs without damaging the environment's regenerative capacity and assure both security and opportunity for social growth. Development of sustainable products, service and

---

technologies is critical to support the effort toward such sustainable economie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impacts of various drivers of sustainable innovation include (a) the trade-off view on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b) the synergy view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and (c) the social responsibility view of corporate citizenship.

## Views on the Association between Growth and Environment

The trade-off view is a pessimis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which economic growth begets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increas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s economies and populations grow, natural resources are used in an increasingly indiscriminate manner, contributing to resource shortages and various forms of pollution. This view argues that consumers, communities and governments instead of the polluters bear these costs. The synergy view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economic growth is essential to enable a society to increase resourc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rovement. It points out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increases the stock of economic, ecological and socio-cultural assets which provides a safety net to meet basic needs of the people. The social responsibility view argues that there is no inevitabl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This view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business culture toward sustainable innovation, e.g. an emerging business orientation tow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citizenship is a business strategy for efficiency and opportunity for growth rather than an obligation.

## Drivers of Sustainable Innovation

The trade-off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the environment takes a position tha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vigilant civil society, the unregulated market neglects essential needs for public goods, externalizes a significant portion of real production costs and tends to move toward monopoly control over resource allocation. In an effort to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governments exercise both regulations and incentives. New regulations and public spending aiming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some sectors of the economy. Government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and grants help counter the expenses that may otherwise prev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green products and abatement technology. Government policies stimulate environmental R&D and provide corporations with the incentives to avoid damaging the environment while preserving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Social activism significantly influences government and industry responses to the trade-off between growth and the environment. Social activism is often effective in applying pressure on commercial enterprises to spend additional resourc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Governments are influenced by social activism,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new regulations and funding priorities. Social activism has raised awareness about many international issues as global climate change, wate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es.

The synergy view suggests that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y can spu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fostering economic growth. Generating synergy between growth and the environment requires transferring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to environmental issues and resource conservation. Customer attitude and demand toward sustainable products and services certainly helps change the way that corporations produce goods and services. Increasing consumer awareness and demand drives company investment in environmental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y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key source of synerg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s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the ability to mitigate pollution and provides new investment and growth opportunities. Developing clean technologies is critical to solving some of this century's most pressing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g. global warming,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and rising energy costs. Environmental technologies help companies improve their image to their stakeholders having concerns to clean or green corporate initiatives.

An emerging view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based on the stakeholder theory, the premise that commercial enterprises are responsible to a wide range of constituents affected by the enterprise's policies, actions and business activities. These constituents include owners,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as well as local community, competitors, environment and media. This i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classical view of corporate responsibility which identifies a corporation's sole responsibility as generating profits for owners of the company. This broad view of CSR sees the modern corporation as a social institution that must consider the interests of all the groups upon which it has an impact. Corporate initiative for sustainable innovation is a mechanism for publicly demonstrating a firm's commitment to good, corporate citizenship in a manner that generates attention and contributes to the company's bottom line.

**A Strategic Framework**

The Table below summarizes the views, drivers, corporate responses and strategies toward sustainable innovation. The tradeoff view supports two external drivers of sustainable innov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ocial activism. The synergy view explores two internal drivers: response to customer demand for environmental goods and advance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view supports two strategic drivers: initiation of comprehensive CSR programs and cooperation with supply chain partners.

Views	Drivers	Response	Strategy
Trade-off	Government regulation	Compliance	Reactive
Trade-off	Social activism	Alliance	Cooperative
Synergy	Technology advance	Innovation	Synergistic
Synergy	Customer demand	Marketing	Adoptive
CSR	Supply chain	Partnership	Relative
CSR	Corporate initiative	Leadership	Interactive

Companies respond to these drivers differently, based upon their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the environment along with the combination of drivers they confront. Each company's response, ranging from compliance to leadership, reflects varying levels of commitment, resources an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t hand. Companies confronted with drivers of sustainable innovation have several choices to make. They may react to the situation by committing the minimum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drivers or react proactively, considering how their response can be used to strategic advantage. (Note: References are available in the author's article, "Examining drivers of sustainable inno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8, 3 (2008), 164-169.



# 한인 시민의 정치력 신장을 기대하며...

## “Hello from Irvine,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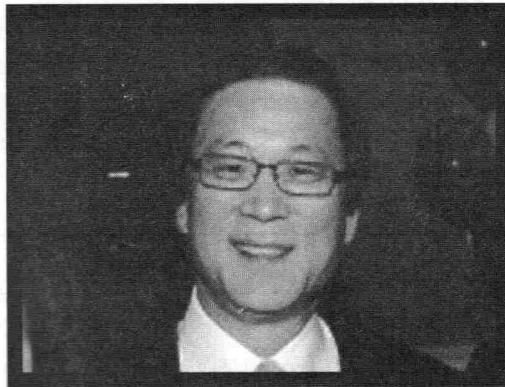
Written by Sukhee Kang

강석희

MAYER  
CITY OF IRVINE, CALIFORNIA

As We move forward through the 21st century and a new era of American politics, it is essential that as a community Korean-Americans remain involved in every aspect of the political process. The first step is by increasing civic particip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ideologies or beliefs. By fostering an interest in the concerns facing our community, we are better able to influence the outcome. Before interest in politics can be developed, one must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rights that are given to each and every citizen. In reading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s will be more aware of their rights and how to protect them. History itself and the work of our Founders can bring insight into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us in making our voices heard.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e tools that are provided for them within their own neighborhoods, cities, and states, despite the vast array of outlets available to them for political



action. Often this is because of cynicism towards American government, however now more than ever it is clear that if citizens are willing to give to their country through volunteerism and public service, the government will match that effort by giving generously to its citizens as well. This reflects the same call to public service that President Barack Obama has

encouraged all Americans to answer since his election last November.

Only by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can Korean-Americans in New England, and nationwide, empower themselves and extend their powers of influence on a local and national scale. Starting from the bottom and working our way up the avenues of political involvement, will allow Korean-Americans to achieve our common goals. Increasing voter regist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will involve more citizens on a very basic level. It is the duty of every American citizen to educate themselves about local leaders and candidates so that they can make the best decisions in regards



to electing leaders that will be hard-working and accountable. "Get Out The Vote" drives and voter registration tables in Korean-American neighborhoods can increase registration among our community members. Precinct walks through our neighborhoods will allow us to simply talk to one another about what we can do to improve our visibility within the political realm. By encouraging fellow Korean-Americans to engage politically, you are simultaneously increasing your political strength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community itself.



Events such as the LA riots in 1992 made me realize the importance of having political power. Although far behind us, the lessons I learned from the riots inspired me to get involved. So many lives and businesses were negatively impacted and many were frustrated by their lack of political efficacy. I soon decided to dedicate myself towards public service and to help ensure that Americans of all backgrounds, including Korean-Americans, had the political power to prevent such events in the future. Thankfully we have come a long way since the early 90s, and are well on our way to an America where we are not divided because of our ethnic and cultural differences but instead united and strengthened by them.

As Korean-Americans, we have gained tremendous opportunities in this country. Thus, it is our duty as Americans to invest and give back to the system that has been so good to us in return. Thank you,

Sincerely,

Mayor Sukhee Kang

### 진어하는 한인미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21세기를 거치며 미합중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미국시민들이 한 사회 구성 집단으로서 전반적인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한인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 각각의 다른 이데올로기와 믿음에 관계없이 시민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것 입니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서 우리는 그에 따르는 부연결과에 더욱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라기 이전에 여러분은 미국의 정부시스템과 각각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관한 지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을 자세히 읽어본 미국시민이라면 자신이 가지고있는 권리들에 눈이 뜨우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역사 그 자체와 이 국가의 건국자들의 업적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수 있는 유용한 통로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의 존재에 관해 무심합니다. 각 이웃, 도시, 그리고 주에는 시민들이 각자의 뜻을 정치적으로 관철 시킬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도구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관심은 미국 정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만연되어있는 냉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 간의 미국사회를 살펴본다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자원봉사, 그리고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국가를 섬긴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통령직에 당선이 되었을 때부터 전 미국시민들에게 사회봉사로, 공직으로 와서 섬기기를 강력히 권유한 것을 반영합니다.

정치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만이 뉴잉글랜드안 뿐

만 아니라 미국전역의 한인미국인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주권을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각자 속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구조의 밑바닥에서부터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힘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한인들 모두가 염원하는 그 큰 뜻을 이룰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활발한 유권자등록활동과 각종 선거에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것 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참정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 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을 할 대표를 뽑기 위하여, 각자가 속한 지역의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이 땅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한인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모두 나가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와 같은 캠페인과 유권자등록테이블을 셋업하는 일들은 우리의 한인사회 구성원들 내에서 등록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입니다. 각자가 속한 지역구를 걸어 다니며 그 지역구의 정계 내 우리의 정치력 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도 있습니다. 주변의 한인미국시민들에게 정치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당사자들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각자 속한 사회 내에서의 정치력을 함께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1992년의 'LA폭동' 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은 저로 하여금

정치력의 부재가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몸서리 칠 정도로 경각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물론 십여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비극적인 일들은 저에게 언제나 우리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일 이라는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과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력의 부재가 미래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몸서리 쳤을 것 입니다.

저는 곧 공직에 제 정력을 바치겠다고 다짐하였고 한국계 시민들을 비롯한,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의 미국시민들 모두에게 좀 더 확실한 정치력이 주어지는 데에 힘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많았던 90년대 초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우리의 민족성이나 문화성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한인미국시민들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끊임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 이 사회에 좀 더 투자하고 환원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캘리포니아 어바인시 시장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2 Central St., Middleton, MA 01949 Tel: (978) 777-7758

회 장: 김동기

사무총장: 권기성

재 무: 이준호

서 기: 임종선

자문위원: 윤익중, 김기석, 최동인, 조봉준, 노명호

시민협회의제18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회장/ 유한선  
부회장/ 서민원  
사무총장/ 강승민

400 W. Cummings Park Suite 1275, Woburn, MA 01801

(781) 933-8822

Fax:(781)933-8855

# 아시안계 미국사회를 주도하는 한국계 미국인들

Written by Leverett Wing

레버렛 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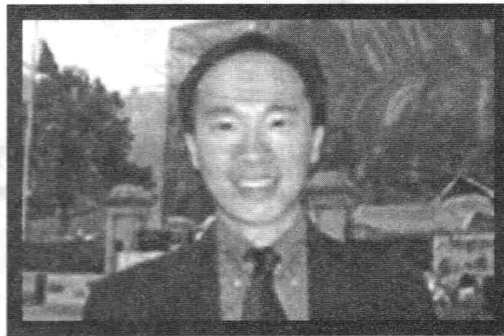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It Was another landmark year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n the world of politics as the community continued to make strides politically over the past twelve months.

From the historic declaration by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that he would be a candidate for Mayor of Boston to the accomplishments of the MA Asian American Commissio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flexed its growing political muscle.

And in numerous instances,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ontinued to b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se significant events.

The biggest political news, of course, came from Councilor Yoon who declared in early 2009 that he would run for the City of Boston's highest office. Sam, the first Asian American ever elected to Boston's City Council, has garnered a substantial national spotlight and has utilized this to raise



considerable funds from Asian America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for his campaign.

As he embarks on another historic endeavor, he faces the difficult challenge of taking on former City Council President, Michael Flaherty, and possibly four-term Mayor Thomas M. Menino, who has yet to

officially declare his candidacy.

Sam, however, has faced long-odds before and emerged victorious. Sam, who will be focusing the early part of the year on raising funds to get his "message" out during the long campaign, should be encouraged by the recent successes of upstart candidates like Governor Deval Patrick and President Barak Obama.

In addition to Sam's candidacy, Korean Americans continued their leadership and high-profile roles in Massachusetts politics.

After being promoted in 2007 to the position of


First-Deputy Treasurer by MA Treasurer Timothy P. Cahill, Korean-American Grace H. Lee continued her work as an advocate for the community in this position. Grace remains the highest ranking Asian American in MA State government and has gained recognition from State Party leadership, being asked to serve on the Democratic State Committee's Executive Committee and on the State Committee's Platform Drafting Committee.

The MA Asian American Commission, which Grace helped lead in establishing, continued its groundbreaking Needs Assessment of the MA Asian American Community. Korean American Kija Kim served as the Commission's Treasurer as it continued its series of Town Meetings and Focus Groups in this effort. With Korean Americans Song K. Kim and Taemin Song serving on the Commission's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the Commission will unveil its first-of-its kind Needs Assessment Report regarding Asian American business owners in the Commonwealth. The report, scheduled to be released by the Commission in May 2009, will identify issues

facing business owners and suggest possible solutions.

Governor Deval Patrick also introduced his own Asian American Commission with a mission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aforementioned legislatively created Commission. The Commissioners, including Song K. Kim, were sworn-in during by Governor Patrick at a ceremony in the Governor's Office in 2008, and will be unveiling their plans in early 2009.

As evidenced by numerous accomplishments over the past twelve months, the lev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 organization within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continued to grow. With Councilor Sam Yoon as its most visible and high-profile participant, the MA Korean American community continued to be an influential force in this growing movement, and with the momentum built over the past few years, the profile and influenc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grow as we head into the next decade.



**시민협회의 제18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18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회 장: 진태원  
임원 및 회원 일동

Tel: (603) 622-9021

[www.nhkorea.com](http://www.nhkorea.com)



#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라

## Reinforcement of Our Democratic Institutions for Future Generation

Written by Juliana Kim Moustakas

줄리아나 김 무스타카스

I am very happy to be here, to meet new people as well as see old friends who have known me for years since I was a child. Tonight,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I have seen the worlds of business and politics connect.

Let me say how honored I am to be here, and be part of this wonderful gathering to raise funds for political internships. Nearly 20 years ago, I started my work experience in the same way, taking part of a US Senate Staff office and thereafter,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for candidate across both political parties. The impressions I gained by being part of these experiences have had a lasting impact on my professional life.

I should say that perhaps I am an unusual choice of speaker tonight as I am not a public figure, nor work for any government entity, nor for that matter reside in the U.S. I have been a banker in the private sector and lived in Europe for the past 10 years. But it is with this background that I claim that having a sense of public du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broader "community" irrespective of where you live and what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시절부터 저를 알아온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저를 만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경제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정치인턴 장학 사업을 위한 모금사업에 초대된 것에 특별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거의 20년 전, 당시 미국상원 사무실에서 정치인턴으로 그리고 미국

의 민주당, 공화 양당의 정치후보를 위한 선거전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한 경험과 인상은 저의 전문인으로써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삼가, 오늘 모금만찬의 연사로는 조금은 벗어난 듯 한 느낌인데, 저는 공인도 아니고 정부기관 공무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또한 아닙니다. 지난 10여년을 유럽 금융기관에서 일하였지만, 이러한 저의 배경이 오히려, 어디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떠나서, 좀 더 광의적 의미의 지역공동체에서 공공의식과 책임감이 더더욱 중요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연제는 세 가지: 1) 어떻게 사적 분야와 공공 분야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지; 2) 세계 공동체에서의 미국의 입지

your livelihood is, has become ever more important.

There are three points that I would like discuss: 1) how the divide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is fading, 2) how I see the US position in the global community, and 3) how we must take responsibility to change the perceptions of solving the "impossible" world problems.

### Connecting the world of "private" and "public" spheres

When I first took on a job in banking, I intended it to be short-lived in the hopes of taking this work experience to give me a head-start on public sector issues. Through the course of events including a move to the UK, remarkably I have stayed in the financial sector, because of what I have seen as the growing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areas, and how one can contribute to public causes irrespective of professional calling.

Each day as I sit on a trading floor, I witness the movements of funds in the currency and bond markets, rising or falling with exuberance or fear of macro-economic decisions. In the recent months, we once again see the powers of public institutions regulators, central banks, and Congress, speaking or acting to combat the market downturns, for both realized and perceived risks. For all of the rhetoric of unfettered free capital markets, it is clear that the textbook economic solutions must be shaped by realistic policy decisions to guide risk management and to protection public goods such as the environment.

If we look to what many call the US housing-market meltdown, this is a situation that has erased all public and private divides. We have seen that higher risk lending, enable through financial innovation, desire for greater risk-taking, and short-term profits, has led to market dislocations, a dry up of financial liquidity and concretely for the individual, higher borrowing costs and for those with risky mortgages, a significant potential for home foreclosures. From this situation, one could point blame to a number of participants the aggressive lenders and bank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supplying the capital for these loans, or even the regulators for not putting in more stringent lending conditions beforehand. All in all, I would dare to guess what the Fed Chairman Bernanke must be facing, as he endeavors to uphold the effectiveness of the Federal Reserve as an institution, a lender of last resort, but also a policy body designed to

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3) 당연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의 문제점들을 푸는 의식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입니다.

### "사적 영역"와 "공공 분야"의 밀접성

원래 제가 은행과 금융업에서 일하게 된 건, 짧더라도 이 방면에서의 경험이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분야" 업무에 도움이 될 거 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살게 되었고, 아주 극적으로 금융계에 몸담을수 있었던 이유는 "사적 영역"과 "공공 분야"의 밀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이한 전문 영역을 떠나, 인간은 누구든 "공공의 선"에 기여 할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현금과 채권의 흐름이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활기와 우려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는, 현실화되고 인식되는 위험과 엄청난 시장 폭락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발표와 실행?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 그리고 의회의 엄청난 역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방임 자본시장의 원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환경문제 같은 공공의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위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교과서적 경제 해법을 바꿔야 하는 현실정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폭락만 보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적 영역"과 "공공 분야"의 경계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재정적인 기발성,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 이익을 추구한 위험도 높은 대출로 인하여 시장분열과 재정 유동성 소진으로 이어졌고, 구체적으로 일반개인은 높은 차입경비는 물론이고, 모기지론을 가진 자에겐 엄청난 주택차압이란 공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혹자는 공격적 대출은행과 이러한 론에 자본을 대는 금융투자가, 아니면 미리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한 금융 감독 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마지막 대출기관일 연방 준비은행의 버냉키 의장이 해야 할 과제는 연방 준비은행이 효율성을 지켜내서 미래에는 이러한 위기를 피할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 되있는 시점에, 시장을 구해야 하기도하고 동시에 시장을 절제해야하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두 번 째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데...

###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

제 자신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자본의 탈 미국화에서 보여지 듯,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시장가치



work towards avoiding these crises in the future. He is certainly walking a fine line between market savior and disciplinarian, and at a time when the US economy is operating far from isolation to the rest of the world.

## Where does the US stand in the global community?

Again with reference to my own profession, I can see how the market values the US in the world arena, as seen by a trend of the weakening dollar and flows of investment capital to other competitive countries. But while these indicators point to the decline of the US, this country still remains the undisputable world leader, both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might. However, to maintain this status, we will need to work towards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e US can influence the rest of the world.

Unilateralism and stand-alone decision making will have limited appeal and effectiveness. There are few issues which countries can handle on their own, and with rising political risks spanning across national boundaries, coopera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common goods will bring about greater multi-national efforts. To operate under this global environment, our leaders will require insight, tolerance and creativity to face problems drawn from cultural, religions, and economic divides. Choices as well as courses of action should be crafted under diversity of opinions, experiences, and professions. We stand at a critical junction in modern history for the US to renew its leadership for peaceful and less volatile world progress. For all my time in Europe looking at the US from the outside, I can tell you how much the world community hopes that this opportunity for the US is not forsaken.

The economist, Jeffrey Sachs, writes about: human crises (over a billion in our world, one-sixth of the population, live in extreme poverty), environmental crises (use of natural resources, depletion of the oceans, pollution of our eco-systems, extinction of plant and animal species), and a population growth that is faster than at any other time in known human history. All of these factors have created a "crowded planet" that can only move forward with more conscientious and sustainability-driven public policies. And it is this issue, involvement in collective decision-making that brings me to my last point

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떨어진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세계의 리더십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를 지속하려면,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독선으로 내려진 결정은 아주 제한적인 호소력과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인 일을 하기란 힘들며,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적인 위험요소를 감안하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의 선을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커다란 다국적 노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하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문화, 종교, 경제의 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 인내 그리고 독창성이 요구됩니다. 의견 결정 과정과 선택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발전을 위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절대 필요한 현 시점입니다. 유럽이라는 미국 아닌 시점에서 지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진 이러한 엄청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사스 경제학자는 인간의 위기 (전 세계 10억의 인구 중 6분의 1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 환경 문제 (부존자원의 남용, 바다 포획, 우리 환경계의 오염, 식물과 동물의 멸종), 그리고 인구는 현 인간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좀더 양심적이고 지속성 가진 공공정책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인구밀집 프레닛"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 지향성이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논지와 연관됩니다.

## 현시점의 도전은 오로지 민주적 제도를 더더욱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개개인 혼자만의 이득을 더 이상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저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민1세가 미국사회에서 입지를 구축키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회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권익추구를 실현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업, 변호업, 의료업의 전문가로 일상생활 할 때 우리의 의사결정이 한 개인에게 국한한 경험으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에게 조언하는 것에 부터 우리의 조합원 지지행위,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진보에 따른 방향설정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좀 더 큰 지역공동체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도전의 해결점은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사회의 민주원칙을 더욱더 철저히 보존하고 우리의 정치 집단을 민주적으로 지지하는데 있다고

## The current challenges can only be tackled by reinforcing our democratic institutions

We can no longer work solely for our own betterment. Being part of an immigrant community, I have seen how many of you and my parents have worked to establishing our place in American society, and this very gathering of the Citizens League is testament to these efforts to have our voices heard in the politics.

But it is also in our daily lives, in our professions, be it commercial, legal, medical or others jobs that many of you hold, we should see our actions not merely as self-contained experiences. From the advice we give to our clients, to the actions we endorse in our unions, to the direction we take with new research and advances, we should look to understanding how this affects our greater community.

Our challenge will be in preserving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our society and supporting our political institutions with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efforts. We can do this for ourselves and as an example for our future generations. So in conclusion

### Conclusion

Let us inspire each growing generation to think of the next in the words of John F Kennedy who spoke about an impossible peace at the time of the Cuban Missile Crisis, our work "must be dynamic, not static, changing to meet the challenges of each new generation. For peace is a process a way of solving problems." So in closing, we are here support our future generations but also to look at ways in which each of us can offer incremental change to the way in which our society functions by bringing the best of our professions and insights to create a sustainable and hopefully peaceful world.

Thank you very much.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함은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에 아주 좋은 본보기를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줘야 합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남긴 말은, "우리의 일은 반드시 역동적이며 정치 상태이면 안되며 각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협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업이며, 또한 여러분 한분 한분의 변화가 차곡차곡 있게 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좋은 영감과 전문성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사회 기능이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로 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 김해연 (줄리아나 김 무스타카스) Juliana Kim Moustakas

줄리아나 김은 서울에서 태어나 두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매사추세츠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브라운 대학에서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줄리아나는 프로비던스 지역의 노숙자 시설을 위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존 케리 상원의원의 사무실에서 정치인턴을 한 경험도 있고, 프로비던스의 로펌에서 여름 수개월을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관심이 많던 줄리아나는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정치학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1997년에 공공 정책 부문의 석사학위를 수료하였습니다. 그녀는 국제재정과 금융시장 분야에 집중하였으며, 워싱턴 D.C.의 백악관 예산과경영 사무소에서 주요 위험을 이슈에 관한 인턴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필수품 위험 정책 부서의 스폰서를 받은 줄리아나의 석사 논문은 개발도상국들의 위험경영에 대하여 서술한 바 있습니다.

실용적 시장 해결책을 사용한 강력한 정책개발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줄리아나는 프랑스의 국제 비즈니스 스쿨, INSEAD, 에서 1998년에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줄리아나는 여러 투자은행들과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있는 Bank of America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임은 경제 상황 분석, 파생 상품 개발과 현재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 하의 투자분야인 생명 보험과 연금 기금 기구들 등의 위험을 해결에 있습니다. 그녀는 장기 저축 기관들을 규제할 새로운 규칙들에 대한 공론의 장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며, 자산-부담 관리 경영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결혼 후 런던과 그리스 아테네를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Juliana Kim Moustakas

Born in Seoul, Juliana was raised in the US from the age of 2. She attended high school

in Massachusetts and was involved in a number of community activities during her youth. During her time at Brown University, from where she graduated with a dual degree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he ran volunteer programs with local shelters, interned with the office of Senator John Kerry. Juliana received a Master's in Public Policy from th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in 1997. Combining her ambitions in developing strong policies with practical market solutions, Juliana carried on her studies in business at th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SEAD in France in 1998. Since then, Juliana has been working for various investment banks, most recently with Bank of America in London. She is Chartered Financial Analyst, now married with a daughter Elizabeth and alternates her time in London and Athens, 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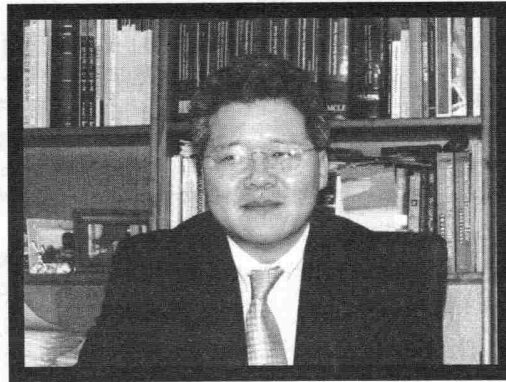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하여

# “이민자의 권익과 미 국익을 모두 아우르는 초당적 정책노선 기대”

글/ 김성균  
시민협회 부이사장

2009년 1월 20일에는 사상 최대 백만 이상의 미국인이 와싱턴 DC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최초 대통령이란 점 외에도, 미 이민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가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 - 하와이 유학생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합니다. 흑자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이 미국역사에서 최초 2세 대통령이라 하는데, 사실 미국 역사에서 2세 대통령이라 하면 일곱 번째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제임스 부케넌, 체스터 아더, 우드로우 윌슨, 허버트 후버 모두 여섯 대통령이 이민1세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둔 경우이며, 이들 여섯 대통령은 모두 백인이고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 온 1세이기에, 실질적으로 영 어권입니다.

그러나 비영어권인 케냐유학생의 아버지를 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아주 독특한 출생기록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을 아시아권(인도네시아)에서, 의붓아버지를 두고 초등학교를 수 년 동안 다닌 것은, 그 어머니의 전공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도 아주 독특한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 미 대륙이 아닌, 동



양-미국인이 주류인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냈다는 것 또한, 미 대륙에서 자랐을 전통적인 대다수 미국 대통령의 “이민관”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듯, 대통령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제 절대 아니며, 특히 미국은 양당체제에 충실하고, 미 의회 양원의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의 이민정책”이 대통령-오바마의 이민정책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짧았지만,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경력이 있으며, 상원의원 재임 당시 “투표기록”(VOTING RECORDS)을 보면, 더욱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할 이민정책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 2006년 5월 - 당시 단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를 통한 Y비자 신설을 옹호하였고, 이 프로그램으로 주로 서부-농장 단기노동자를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6년 9월 - 당시 부시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멕시코 국경 설치”(BORDER FENCE)를 옹호하였고, 이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정책을 지지한 듯 보입니다.

- 2007년 6월 - 미국에서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에 반대하였습니다.

- 2007년 7월 - 당시 케네디 의원도 지지하였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 (CI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에 찬성하였고, 이 개혁안의 골자대로, 일단 불법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당장 Z비자를 신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에 지지하였습니다.

- 2008년 1월 - 당시 케네디/맥케인 양당 원로 의원이 지지하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자 자녀들이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 (DREAM ACT)에 동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여지 듯,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은 전통 민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 절대 입장인 듯합니다. 또한, 문제 있는 발상 이긴 하지만, 마치 외국노동자가 자국민의 일터를 뺏을 거라는 민주당노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상원이란 입지에서 일했던 그의 정책노선이고, 이제 앞으로는 초당적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민 정책지 할지는 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이 그 스스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민자와 같은 어린 삶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하와이 주에서 살았기에, 남달리 우리 이민자의 입장에서 한번쯤 더 깊게 생각하여 공정한 이민정책입안과 지지를 하리라 희망해 봅니다.

## 오바마 내각의 노동장관 힐다 솔리스의 이민 정책

오바마 정부 내각의 현 신임 노동 장관 힐다 솔리스 장관의 이민관 그리고 2000년 이후 캘리포니아 하원시절부터 어떠한 이민법을 지지하였는지를 또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솔리스 장관은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노선을 따랐듯, 포괄적 이민개혁법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 지지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미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찬성하였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 체류자에게 합법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가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비자 쿼타에 묶여있는 이산가족의 비애를 인식, 당시 HR 1814 (미군속 직계가족 특별 초청안)의 법안통과에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시 케네디-맥케인이 지지하였던 "드림법안" (미국에서 고등학교졸업을 한 서류 미비자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에도 강한 입법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도 지지하였던, 2007년 단기 농업인을 위한 개혁법의 초기 입안자로서, 성공적으로 법제화 하는데 성공한 경력

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 장관의 이민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민자에게 유리할까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 장관의 경우, 특히 취업이민과 단기 취업 H비자 영역에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산으로 처리하는 PERM 노동부L/C (LABOR CERTIFICATION) 거부률을 보면, 얼마나 노동장관의 이민관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2008년 10월 27일 발표한 L/C승인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회계년도까지 PERM을 통한 신청을 하여 약 20% (5개 중 1개) 가 거부내지는 반려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PERM신청이 이제는 더 이상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PERM 시행의 역사는 과거 지역에 따라 심하게는 2-3년 이상이 걸리는 노동부승인의 폐단을 없애는데 있었고, 4년 전 시행 초창기에는 3-4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이면 승인이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2007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 (AUDIT)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종은 전통적으로 숙련공이었던 직종이 더 이상 숙련공이 아니라는 조금은 황당하고 잘못된 이유였고, 그 또한 신청인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치 않고, 일부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이 된 케이스 중 아주 일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층감사를 받는 케이스가, 노동부 발표를 보면, 2007년 7월이라 하니 거의 18개월 전에 신청한 케이스가 심사 계류한다는 아주 지나친 정당치 않은 지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신청케이스도, 노동부가 밝힌 심사우선일자를 보면 현재 2008년 3월, 즉 10개월에 육박합니다. 이는 초창기 "PERM/ LC 6개월 내 승인 원칙"에 한참 빗나간 노동부의 행정마비이고, 불공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는 케이스별 주먹구구식 심사행정은 더욱더 신청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미국취업의 일차 관문이 되는 L/C 승인에 있어서, 노동부의 지나친 지연과 문제점 그리고 불공정 사례를 신임 솔리스 노동부 장관이 충분히 인식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노동부 L/C 행정은 아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리라 관망합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은 노동부와 이민국, 두 주무기관의 공동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 두기관의 최고 수장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견과 정책노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이 당파적 이견을 넘어 초당적인 국익은 물론이고, 이민자들의 권익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응적인 정책노선을 펼칠지 기대합니다.

# 내가 바란 그 이상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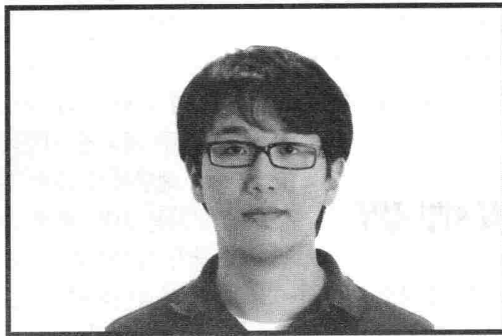
## More than what I had hoped for

by Jae Won Lee

프로젝트 가 하나가 생겼어요.” 사무실 스텝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나의 정치인턴생활은 메사추세츠 퇴역 군인 서비스부(이하 “DVS”: Mass.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의 S.A.V.E.팀과 함께 시작되었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었다? 도대체 왜 의대준비학생이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려하나고.

나도 실제로 첫 인터뷰 전화를 받았을 때에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S.A.V.E.팀 멤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 기회야말로 진정 내가 필요로 했던 경험이다 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S.A.V.E. 프로그램, 또는 주내 퇴역 군인 권리향상 지지자협회는 비교적 새롭고 이 메사추세츠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주립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8년 2월에 이라크 자유작전(OIF: Operation Iraqi Freedom)에 참전했던 메사추세츠 주민이 자살한 후에 그 여파로 창설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요임무는 메사추세츠주 출신 퇴역군인들의 정신건강상태를 검진하고, 필요하다면 자살방지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퇴역군인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DVS는 메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의 직속기관이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메사추세츠주 보건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있다. 내 입장에서 볼때에 이 인턴쉽은 공직에서의 경험만 얻게 하는 기



회가 아니라 공공의료 관련 경험 또한 쌓게 하는 아주 값진 기회였다. 불과 일년전만 하더라도, 과학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나는 이런 기회엔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이런 추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은 생물의학이 의학의 하나뿐인 시스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의학은 너무나도 방대한 분야이며 보건의 매

우 복잡한 체계를 요한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 나는 헛갈렸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생물의학은 내가 생각하던 것처럼 깊지 않았고 의학의 발전이 더 나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현대이전'을 들여보자면, 백신을 비롯한 생물 의학적 중재들 대부분은 많은 전염병에 의한 사망율이 급속히 감소한 이후에 의약시장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내가 배운 교훈 한 가지: 개개인의 건강은 실제 환경과 과학적 진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의 첫 S.A.V.E.팀과의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록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이메일 주소들을 퇴역군인서비스사람들(VSO; veterans' service officers)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메사추세츠주 안의 각 지역구들은 이 VSO들을 그 지역의 퇴역군인들과 접촉하기위한 첫 번째 연락책으로서 고용하고 있다; 하지



만 그들은 DVs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퇴역군인들의 연락처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일췌였다. 이 VSO들은 또한 DVs내에서도 연락처가 잘 안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DVs에서 그들의 연락처를 원했던 이유는 그 퇴역군인들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이메일로 빨리 보내기 위함이다. 이 일에 매진하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VSO들은 사무실에 없었다. 거주지의 연락처도 불통이었고, 몇몇은 내가 남긴 메시지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DVs에 있는 주소록의 그들 중 몇몇의 연락처는 부정확하게 기재된 게 많아 지역구에 직접 연락의 취해야 겨우 올바른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는 VSO들이 몇몇이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 동안에 VSO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일들이 내게 주어졌었다. 나의 일과 중 엄청난 양의 시간을 들여야 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는 교부금의 기회를 찾아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여러 인터넷의 자료를 기반으로 DVs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일 역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일에 임하면서 이 교부금신청이라는 작업이 그저 인터넷 검색엔진에 몇 가지 단어를 쳐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몇 초간 기다리면 되는 정도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문제점은 교부금신청 가능한 사이트에서 내가 veterans, disabilities, children 등등 여러 다른 키워드를 입력한다 해도 결국엔 똑같은 결과만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었다. 결국엔 관련 있는 결과물들을 컴퓨터가 아닌 내가 직접해야했고, 그 뒤에야 어떤 재단의 교부금 자금을 DVs가 신청서를 낼 관심이 있는지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거나 컴퓨터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일을 한다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정말 내 일이 따분하고 지겹다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실은, 이 인턴십의 일은 한 번도 단조로운 경험을 내게 주지 않았다. DVs는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다. S.A.V.E. 팀은 언제나 내가 의미있는 경험을 얻도록 인턴십이 제시하는 좀더 많은 '현장실습'에 보내길 원했다. 그래서 DVs사람들은 퇴직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문과 회의들에 나를 동참하도록 했다. 결보기와는 달리 사무실에서 하는 일에 전문가들인 S.A.V.E.팀 사람들은 사무실 바깥에서도 열심히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그러한 인간성에 매료되어 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좀 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내가 배운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퇴역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살속의 투쟁을 겪으며 살아 가는지였고 그들이 각자의 살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내 자신이 평소에 고민하

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더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퇴역군인업무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비롯한 미국연방정부에서는 퇴역군인들에게 보조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퇴역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DVs를 비롯한 주정부기관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인턴십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회의를 뽑으려면 미국 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과의 회의였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건강이 지금 이 사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항상 공공보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참여는 나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었다. 이 회의에서는 S.A.V.E. 팀이 어떻게 퇴역군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들을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다. 보건국이 이 회의에서 듣길 바라는 것은 왜 그들이 계속하여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어야 하는지 그 이유들 이었다. 이 회의들에서 나는 보건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국가사업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공공보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다른 경험은 우스터주립대학에서 열렸던 퇴역군인인증심사원회의(Veterans' Certifying Officials Conference)였다. S.A.V.E.팀의 멤버 몇몇을 비롯한 여러 심사원들이 퇴역군인들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의 주된 요지는 교육이었다. 나의 사무실 일을 통하여 또한 알게 된 것들 중 몇 가지는 '인내작전'(Operation Enduring)과 '이라크의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을 겪은 퇴역군인들에게는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외상성 뇌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이 나타나며 이 증상들은 현대전쟁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나는 여태껏 PTSD가 실제로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이번 정치 인턴십 프로그램의 마지막 사이트 방문을 한곳은 퇴역군인업무부의 보스턴 보건기구(Veterans' Affairs Boston Healthcare System)였다. S.A.V.E.팀 멤버 두 명이 한 퇴역군인과 그의 사촌 두 명을 동반하여 퇴역군인업무부를 방문하였다. S.A.V.E.팀은 그 군인이 중동에서 돌아온 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가족의 우려에 업무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도록 설득에 성공했다. 나는 업무부의 방대한 크기에 또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지난여름에 내가 방문한 적이 있는 전역군인센터와 같이 조그마한 사무실 빌딩이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업무부는 거대한 병원이었다. 팀 멤버 중 한 사람이 내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자원하여 끝까지 팀과 남겠다고 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꽤 길었지만 이 방문을 통해 의료분야에 대한 나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나는 정부기관에서 나의 인턴십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한 개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황을 관찰 하는 데에도 역시 관심이 크다. 이번의 한인미국 시민협회 정치인턴프로그램은 그러한 나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 이유는 퇴역군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회적상황이며 그들의 질환은 그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DVS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나름대로 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후에 얻은 나의 경험은 내가 바라던 그 이상의 의미를 내 삶에 부여했다고 확신한다. 이 인턴쉽 프로그램 기간 내내 나의 이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 옆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DVS에서의 일들은 내가 이전 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어쨌든 내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들의 곱질의 것을 이 인턴쉽 프로그램이 제공해 주었다. 이제야 나는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전쟁의 한 면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큰 부상 없이 돌아온 군인들조차도 그 전쟁에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개인적인 레벨에서 겪어볼 수가 있었다.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나도, 나의 매일매일 삶속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볼일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혀 내 삶과 무관하다고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미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이제껏 내가 생각해 오던 많은 것들이 틀렸음을, 또 그런 내 과거의 무관심이 앞으로 올 내 미래의 의료를 정의하는 일은 없을 거라 믿는다. 이 깊은 의미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는 내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배운 이 값진 경험과 교훈들이 내가 훗날에 의료계에서 종사할 때 까지도 내 안에 강하게 남아있음이다.

**"We have** a project for you," I was greeted with a warm welcome, and so began my internship with the S.A.V.E. team at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DVS). Some may ask, and often did ask, what a pre-med student could possibly gain from working in a political organization. I asked myself the same question when I received their call for an interview. As I was listening to a member of the S.A.V.E. team, however, I quickly realized that this opportunity may be the experience that I needed. The S.A.V.E. program, or Statewide Advocacy for Veterans' Empowerment, is relatively new and unique to Massachusetts: it was initiated in February of 2008 in response to the suicide of an Operation Iraqi Freedom (OIF) veteran residing in Massachusetts. The main goal of the program is to assess the mental health of Massachusetts veterans and offer referrals to suicide prevention programs if necessary.

The DVS itself is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Governor's Office, but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Perhaps my favorite outlook for my internship was that I would be participating not only in public service but also in a public health measure. Just a year ago, I would not have paid attention to such an opportunity, as I was only interested in the sciences. This pursuit seemed natural because I saw biomedicine as the only system of medicin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 had seen that medicine is a broad field and health is a complex construct. At first, I was confused and disappointed because biomedicine turned out to be not as comprehensive as I thought, and biomedical advancement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better health. One notable example for this 'modern heresy' was that biomedical interventions, such as vaccines, were mostly introduced after a significant decrease had already occurred in the death rates due to many infectious diseases. Ultimately, what I learned was that health is affected not only by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cientific advancements but also by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of each individual.

My first project with the S.A.V.E. team entailed getting email addresses from veterans' service officers (VSO's) who did not have them listed in the contact booklet. Each municipality in Massachusetts hires VSO's to be the first point of contact for its veterans; however,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VS and thus the departm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all their information. They are also infamous at the department for being hard to reach. The reason that the DVS wanted their contact information was to be able to send out information electronically, in order to support the idea of going green as well as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was sent out quickly. As the project progressed, I learned that this work was much harder than I had expected. Most of the VSO's were not present in their office or home when I called, and some of them did not respond to the messages that I had left them. Also, some of their phone numbers listed in the directory were inaccurate and I had to call the municipalities for the correct information. To this day, I have not yet heard back from some of them.

Besides calling all the VSO's, I was given other clerical tasks during the course of my internship. Another major project that took up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was searching for grant opportunities. Through various online resources, I searched for grant opportunities that the DVS could apply for in order to conduct various projects. Although the task seemed easy at first, it also posed its own set of challenges. I realized that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grants did not merely involve typing search words and waiting three seconds for all the relevant results to show up on the computer screen. The main



problem that I encountered was that no matter what search words I typed in?veterans, disabilities, childcare, etc?I seemed to get the same listing of grants. In the end, the sorting process occurred manually, and I read through all the opportunities to see whether the grant was what the DVS may be interested in applying to.

With all the jobs that involved sitting at a desk and calling people or staring at the computer screen for hours, some may think of my internship as dull and tedious. In truth, however, this job was never monotonous. The DVS was as much interested in helping me as I was interested in working for them. The S.A.V.E. team always tried to get me "out in the field," so to speak, to make sure that I had a meaningful experience. Thus, I accompanied them on various visits and meetings, starting with a visit to a veteran and his family, which was memorable in many ways. I saw that the S.A.V.E. team, though they are experts in the office, enjoy life outside their work, and I finally felt closer to them because they displayed a certain humanity. More importantly, I learned of the struggles that the veterans and their families have to endure, and their troubles seemed less removed from my own concerns. Although the federal government, such as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offers assistance to veterans, it may not be enough for each individual, and so state-based agencies, such as the DVS, have to intervene. This veteran knew of these hardships because he had found that services offered by the VA were not enough to help him.

The most notable meeting that I attended was with the DPH. Ever since I had learned that health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society, I had been more interested in public health, so meeting with the department was an exciting prospect. In this meeting, which was between the S.A.V.E. team and the DPH, the team presented case studies of how they had helped the veterans. The department wanted to see why they should keep funding this project, and in this meeting, I saw how they decide to support a program and what they are seeking in order to improve public health.

Another eye-opening experience was the Veterans' Certifying Officials Conference at Worcester State College. Various officials, including a member of the S.A.V.E. team, spoke of different issues regarding veterans, mainly around education. From my office work, I knew that the main problems for veterans of Operations Enduring and Iraqi Freedom (OEF/OIF) wer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traumatic brain injury (TBI), which are characterized as signature wounds of modern wars. However, I had not known that PTSD was an actual physical ailment; I had always thought of it as a mental illness. This conference

contributed additional knowledge?including scientific?and I felt that it was worth waking up at five in the mo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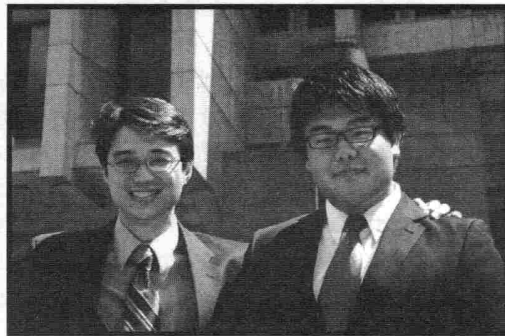
The last visit that took place close to the end of my internship was to the VA Boston Healthcare System. Two members of the S.A.V.E. team accompanied a veteran and his two cousins to the VA because he was nervous and did not trust the VA. The team convinced him to visit the VA for screening, as his family was concerned that his behavior had changed since returning from Middle East. They succeeded in persuading him, and when we went to the VA, I was probably the only one who was amazed. Where I had expected a small office building like the Vet Center, which I had visited earlier in the summer, was a gigantic hospital. The veteran was taken in for a series of tests, and while the others were waiting, I could not stop wandering around the hospital. We probably waited for a couple of hours, and although one of the S.A.V.E. team told me that I could go home, I volunteered to stay and wait with them. I was excited to be in such a large hospital?though this feeling subsided after the first hour?and I wanted to experience what the team has to go through every time they take a veteran to the VA. It was a long wait, but the visit left me with a renewed desire to continue my pursuit of entering the field of medicine.

Of course, I began my internship for public service. But I was also interested in seeing the role of social context on the health of an individual. This opportunity seemed perfect because being a veteran is a social condition and their illness is a result of their social context. I had my own intentions when I started working at the DVS, but the experience was ever more meaningful than what I had hoped for. I was in the company of those who really cared about my experience, and my work at the department reinforced what I had learned earlier. However, I learned so much more than I had expected. I finally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the modern wars, and what the soldiers themselves are enduring. As with most people, I did not care much for the wars as long as it did not affect my everyday life. Then, it became my everyday life, and I learned that I had been wrong, that my indifference would not be the characteristic of a medical profession. Through this meaningful summer internship, I became engaged in social issues beyond my initial interests, and I hope that I continue to care about these matters even when I become a healthcare professional.

# 나에게 꿈이 있다면... Internship that gave me a Dream

by Yeonman Jung

“그리쌤, 우리가 추천하고 자 하는 후보는 정연만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엠허스트의 메사추세츠 주립대 졸업반에 있으며 정치학 전공에 경제학 부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고 당신의 사무실의 보기 힘들었던 큰 자산이 될것 입니다. 정연만 학생에게는 인터뷰를 위해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의 신상은...”



샘윤 시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터뷰연락을 받은 후 저는 어안이 병병하였습니다. 마침내 나에게도 이 미국땅 정치인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곳 유학생들에게는 어림도 없었던 이 시민협회 정치인턴 프로그램이 앞으로 있을 제 커리어의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 이라는 믿음이 굳건합니다. 이곳 보스톤시의 역사상 첫 동양계 시의원인 샘윤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한 저의 영광입니다. 샘윤이 처음 보스톤 시의원으로 당선 되었을 당시에 저는 그에 관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나마 샘과 그의 스태프들에 대한 뉴스를 접할수 있었는데 여름 내내 바로 그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턴일이 확정된 그날부터 저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 정치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경력이나 학업 성취도가 주위의 날고기는 친구들과 견줄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턴프로그램 시작 바로 전부터 제가 과연 그 사무실에서 보스톤시가 당면해 있는 중대한 이슈들에 관한 일들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인턴십 시작날짜가 다가오에 따라 더욱 거대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프로그램 첫날에 샘윤 시의원과 그의

스텝들을 만난 후엔 그리 걱정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시의원 사무실의 모든 스태프들과 샘윤 시의원은 저를 시작 당일부터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샘윤 시의원, 또 그의 스태프들을 와싱턴 DC로 운전해 내려가 만나러 갔던 기간동안 의원님이 식사를 사주셨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식사가 우리 테이블에 나온후, 샘윤은 자신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 그릇에 자신의 몫을 조금 떼어 주었었지요. 한국식문화에서,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그러한 선심을 베푸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보스톤에서 와싱턴 D.C.까지 장장 7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 내려가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첫 임무는 뉴저지 세탁인협회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당시의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것 이었습니다. 그 통화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통화를 통하여 저는 그 여름 내내 동안에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정치인턴으로서의 임무를 끝마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샘운 시의원의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세탁인 협회 회장님께 전하는 일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시의원님은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 동안 저에게 마침내 유창한 한국어로 일을 척척 해내는 인턴이 생겨 너무나 반갑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또한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제 이민자 여러분들은 영어로 시원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전화 수화기의 다른 한쪽에서 그 세탁협회회장이 협회에서 직면하고 있던 여러 이슈들과 우려들을 그렇게 통쾌하게 다 전하고, 또 그에 대한 정부 사무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반갑다고 하였고 저는 그때에 '그래, 나도 이곳에서 무언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전화통화 하나하나를 통하여 나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 회장님의 외 다른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이슈들에 우려를 표명하고 싶어할까? 이 땅의 한인사회들을 대변할 만한 충분한 수의 정치인들이 있긴 한건가? 어떻게 이 단 하나의 인턴이 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더 많은 한인계 시민들이 정계에서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 인턴쉽 기간 동안의 주요 업무는 당시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던 "옷걸이 정책"에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슈는 미국의 상무부에서 중국산 옷걸이들에 대하여 관세를 매기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슈가 공론에 나오자, 이에 대비하여 미국의 세탁업 관련 제조업자들이 전국 세탁업소에 납품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갑절로 올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옷걸이 정책"이 법으로 통과하고 관세가 중국산 옷걸이에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모든 미국의 세탁업자들에게 매달 500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일 년이 되면 미전국의 세탁업계의 부담은 3백만불에 달하며 그 여파가 몇천 개의 중소기업의 직업을 없애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약 5만여 개의 세탁 업소들이 있으며 그중의 상당수는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전체의 세탁업소 절반정도는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세탁협회들은 정계에 편지보내기 운동을 얼마 전부터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또 그 옷걸이정책관련 이슈에 대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 4월부터 샘운 시의원은 전국각지의 30개주의 세탁협회들로부터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와 미국상무부에 중국에서 오는 옷걸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임시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청원하는 약 500통에 달하는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 스스로 운전해서 가야했지만, 워싱턴 DC에 갈 기회가 열려 샘운 시의원이 워싱턴 DC의 국제무역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여해 관세에 대하여 반

론을 펼치는 것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책에 관련하여 한 업무는 모든 관련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미국 모든 지역의 한인 세탁인 협회들과 모든 주요 한인신문사들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청문회 후에 새로 진전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그 단체장들에게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혼다 국회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혼다의원은 미국회의 단 하나뿐인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 또한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끝내며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장대하고 키가 큰 동양인일세. 보통 한인들의 덩치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런 자네의 꿈은 다른 어떤 한인들보다도 커야하지 않겠나? 큰 꿈을 꾸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나. 행운을 비네." 혼다의원의 이런 짧은 코멘트가 제 가슴에 와 닿는 순간 저는, 커다란 석망치로 뒤통수를 한방 크게 맞는 기분 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 "그래, 좀 더 큰 꿈을, 확실히 짓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 가슴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백문이면 불어일견이라.' 워싱턴 DC로의 짧았던 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커다란 실습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약 백 삼십 만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론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인들의 미국정치참여도는 그 어떤 동양계 이민자 집단들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인들의 생활수준은 몇 십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고 대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인들은 이곳에서의 '그저 편안한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이젠 이 땅에서 낼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위치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엔 훌륭한 한인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턴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실히 배운점 한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책임질 어린 꿈나무들에게 공직에서의 사회 섬김에 대하여 확실히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욱 많은 2세, 3세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학을 목적으로 열여섯 살 때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남부 조지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며 이곳 메사추세츠 앰허스트 주립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번 한인미국 시민협회정치인턴프로그램은 제가 학교에서는 절대로 접해볼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교훈과 경험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속했던 여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정치계에서 직접 경험을 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정부내의 인턴쉽을 따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정치계에 꿈을 품고 있던 저로서는 이곳 선진국가인 미합중국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짧은 인턴쉽 하나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3학년, 그리고 4학년 내내 이곳저곳 수소문 해 보았지만, 결국엔 '너는 안된다'는 것이었

습니다. 하지만, 이곳 정치계가 돌아가는 것을 꼭 경험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알아보았으며, '이것이 결국 나의 미션이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에서 멀리 가려한다 해도 이 길로 인도하시리라'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 바로 이번 여름기간 내내, 저는 언제나 불가능할 것이라 보였던 미합중국 주 정부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턴십을 통하여 저는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정확히 공부를 더 하리라는 의욕과 꿈을 한층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한 여름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마다 제 손안에 잡혀있던 공부내용들에 대한 저의 집중력은 갑절로 늘어나고 제 정신은 더욱더 맑아지기만 합니다.

보스톤 시의원 샘윤의 사무실에서 일한 이 경험은 제게 있어 정치계에서 전문적 그리고 현실적인 경험을 얻기 위한 믿을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 능력과 헌신을 통하여 할일이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인미국시민협회의 정치인턴프로그램은 그러한 제 꿈을 착착 쌓을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Ms. Grissom, the candidate we would like to recommend is Yeonman Jung. He is currently a senior in UMass, Amherst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He is an excellent student and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be an asset to your office. I have asked Yeonman to directly contact you for an interview. His information is..."

Soon after I received the interview notice from Councilor Sam Yoon's office, I was in disbelief. I finally foun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 internship position in America. This internship was the stepping stone of my career because it was an unheard of opportunity for any international student. It was an honor to have an internship at Boston City Councilor at Large Sam Yoon's office, who is the first Asian American Councilor in Boston city. I read countless newspaper articles and media broadcasts, but I could have never imagined that I would be working in that office. I knew from that moment that I would be able to strongly pursue my interest in politics through this special opportunity with the Boston City Councilor.

In my perspective, I'm not a student that exceedingly excel in one particular academic subject nor have any extraordinary skill. At first I was scared of my internship because I wondered if I would be wasting my time and not be of any help to the Councilor's tasks. My initial fear was not being able to perform a task correctly at an office where they deal with solemn

issues. As my first day at the office approached my fear and nervousness continued to grow. However, after I met all the staffs and Councilor, I notice that there wasn't too much to worry about. All staff members treated me like family including the Councilor Yoon, who was so generous that he felt like my own uncle. I could never forget the moment when the Councilor treated me to a meal in DC. After receiving our dishes, he placed some of his food on my dish before he began eating. In Korean custom it is considered one of the highest honors when an older person does this kind of act of generosity at the table. At that moment, all of my stress and tiredness from driving seven hours to come to D.C. vanished.

On the first day, my first assignment was to call the President of New Jersey Dry-cleaning Association to discuss his views on the ongoing events. The talk on the phone didn't have much seriousness nor was it long, but this phone call gave me tremendous motivation to perform well as an intern. I was delivering the Councilor's message to the president in Korean. While delivering the Councilor's messages to the president in Korean, I was very happy to be able to assist the Councilor who said that he was so glad that there was someone who can speak Korean to intercede him. Many first generation immigrants have little difficulty of speaking in English. When I heard that he was so glad to share many issues and concerns in Korean in government office, I felt 'I can do something here. I can make a difference with one phone call'. On the other hand, 'How much concerns and issues that he or other Koreans wanted to speak out to Councilor? Does the Korean Community still lack enough public officers to help them? How come just one intern has this much of value?' I felt that more Korean American should be involved in governmental related fields while at the internship.

The main task I did for my internship was "Wire Hanger Policy". This issue was that the Department of Commerce was considering imposing a tariff on Chinese produced wire hangers. In anticipation of this tariff, US distributors have doubled their prices to US dry cleaners. If enacted the tariff would mean \$500/month in additional business costs. This would mean over \$300 million in losses for drycleaner's annual income and could cost the American economy several thousand small business jobs nationwide. There are roughly 50,000 dry cleaning businesses in the U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mom-and-pop businesses. Almost half of all US drycleaners are owned by Koreans therefore Korean dry cleaner association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engaged in a letter-writing campaign and have been organizing around wire hanger issue. Since April Councilor Yoon



has collected over 500 letters from dry cleaning establishment owners in almost 30 states, who aske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to reconsider their preliminary ruling to impose a tariff on hangers coming from China. So I had a chance to go to D.C., and Councilor Yoon testified in opposition to the tariff 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earing. My part of this policy was translating many English documents in Korean, and then distribute to all regional Korean Dry-cleaning Association and report this to all major Korean press. After ITC hearing, I also updated upcoming news to all regional dry-cleaner owners.

At D.C.,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Congressman Mike Honda. He is the only Asian American in US congress. It was an honor to meet him. When he leaves he told me "You are one big and tall Asian. You are not average size for Korean. Then your dream should be bigger than any other Koreans. Have a big dream and make it happen. Good luck" This one short message brought huge impact, and made me to focus on my dream. Also, many Korean elders encouraged me with advices. It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attending the ITC hearing. In Korean proverb says, 'Seeing once is much better than listening hundred times'. The trip to D.C. was the best field study that I had in my life.

There are 1.3 million Korean in America, but statistics show that the participation in politics for Koreans is weaker than other Asian nationality such as Chinese and Japanese. Nowadays, Korean immigrants have stable life compare to several decades ago. We must not look for stability life anymore; this is time to improve our voices and quality of status in this society. There are

many talented second generation Koreans, I felt that we must educate young Korean children about the importance of being public servant, and offer more political internships to children.

I came to U.S. at age 16 to study, I am a student of UMass Amherst, and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I have gained real world experience that I can't learn it in college. While I have served my community in many areas, this was the first time to gain experience in government and politics.

It was really hard to get an internship in US government as an international student. The process of finding any government related internship was tedious and disappointing. However, my passion to learn and become involved in US government forced me to continue. I prayed, and I said "if this is my mission and right way, then you will make me to do this job even though I try to stay away from it." This summer, I was working for the US government as an intern in which I assumed was an impossible task. Through the internship, I acquired a good sense of how the government works and gained more motivation and enthusiasm to continue my studies in politics. It comes back stronger, sharper, more focused and more creative when I think about my internship experience.

The experience of working at Councilor Yoon's office was a fabulous opportunity to achieve professional and practical experience in the political field. The challenges of working for the US government excited me, because I respect the values in which America was built upon. I strongly believe that I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is beautiful world with my talent and commitment. This was the golden chance and the starting point of my dream.

시민협회의 회지 18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 보스톤 한미 노인회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603-585-7082

회장: 민유선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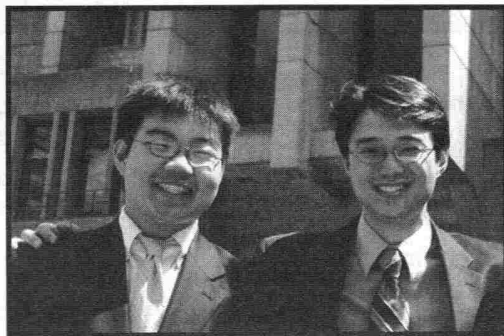
## “여기는 보스턴시의원 샘윤의 사무실입니다.”

by Michael Shin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겠습  
니다. 고등학교 2학  
년, 사무실에서 일 이라곤 전혀 해본  
적 없고, 정치엔 문외한인 제가, 뉴잉  
글랜드 미국시민협회 정치인턴 프로  
그램 첫 날부터 캠페인 사무실의 프  
랭크와 일을 시작할 때, 엄청나게 떨  
렸었습니다.

작년 4월의 정치 인턴 만찬 때 여  
러분들 앞에 서서 샘윤 보스턴 시의  
원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를 한참 받은  
후에도 제가 정확히 무얼 하게 될는지, 그저 최초의 동양계 보  
스턴 시의원인 샘윤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 말고는, 확연한  
구상이 서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 제가 머리끝부  
터 발끝까지 정장과 구두로 빼입고 쭈뼛쭈뼛 사무실로 갔을 때  
에, 편한 청바지와 폴로셔츠를 입고 웃음을 띠고 있는 프랭크를  
보는 순간, 제 속 안의 두려움은 물이 씻기듯이 사라져 버렸었  
습니다. 바로 프랭크는, 저를 사무실의 다른 스태프들에게 소개  
를 시켜주면서 네가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외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 달 동안 이 사무실에서 최선을 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여름 한 달 동안, 프랭크는 샘윤 의원의 캠페인과 관련된 모  
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게 되었  
었습니다. 샘의 페이스북 페이지 에서부터 그의 기부 데이터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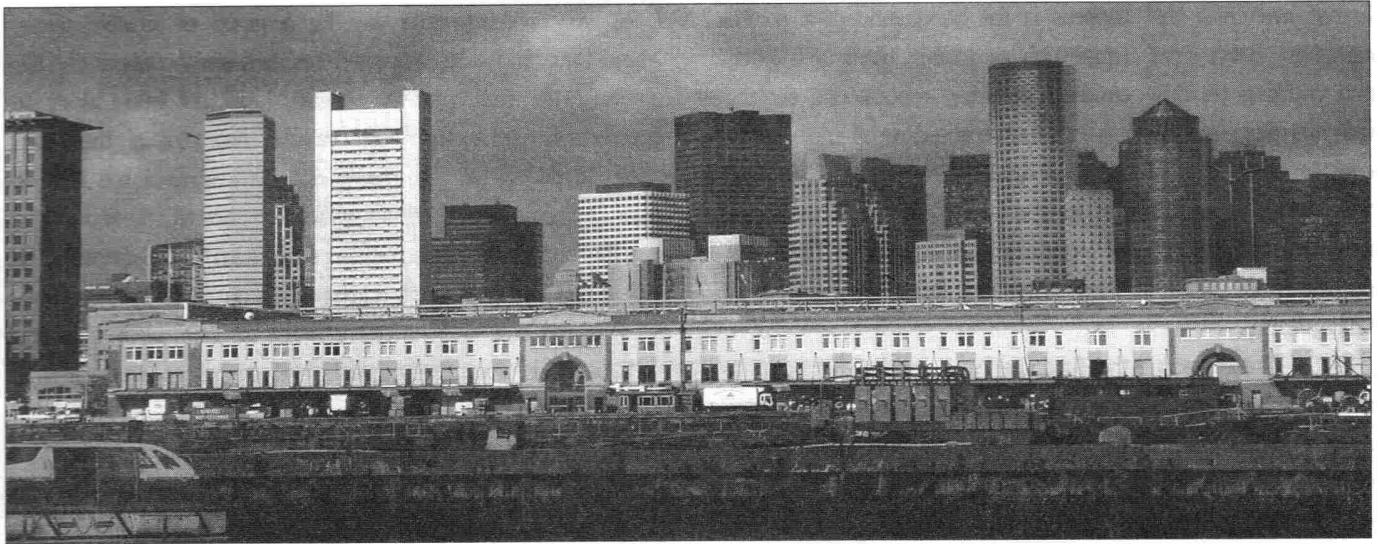


이스까지, 종류도 천차만별 이었습니  
다. 이 과정에서 정치캠페인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상세히 들여  
다 볼 기회가 많았다고 봅니다. 감사  
편지를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작은일 에서부터 샘에게 매일매일 들  
어오는 이메일 확인, 기부금 기록, 모  
금이벤트들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 전  
화를 돌리는 것까지, 제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

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보라하면 이 지역 한국  
계 미디어에 나갈 발표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와 뉴잉글랜드 한국데일리 신문에서 샘윤 시의원에 관련된 뉴  
스가 나올 때,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가 나오는 보니 마음이 너  
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정치모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해 보는  
것에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샘윤의 정치모금 행사가 뉴욕에서  
열릴 당시 저는 이미 맨하튼에서 여름프로그램 차 와 있었습니  
다. 저는 그 모금행사에 참여해 샘윤을 돕기로 자원했고 그곳에  
서 그의 카리스마와 성공적으로 모금행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금행사엔 많은 각계의 인사들이 있었는데, 오  
랫동안 샘윤 시의원을 지지해온 성공적인 사람들을 만날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  
니 저 자신마저도 그분들처럼 성공적인 한인미국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얻었던 경험과 자신감이, 정치인턴 프로그램 후에도 계속되는, 미래를 향한 열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모금행사에서 샘윤 시의원이 자신이 품고 있는 보스턴의 비전에 관하여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청중들이 그의 열정에 반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의 열정과 언변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고,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모방하려 혼자 집에서 연습하곤 합니다.

주중에 다른 날들에는 주청사에 있는 샘윤 시의원의 사무실에 가서 다른 스태프들, 인턴들과 함께 미디어에 보낼 발표내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른 정보관련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샘윤 시의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 경험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인턴기간 내내 저를 따뜻하게 한 가족처럼 받아주었던 사무실의 메리, 데이브, 그리고 리치를 포함한 스태프들에게 받는 환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초차 인턴인 저를 교육 시키는 데에 썼습니다. 데이브는 샘윤 시의원의 매일 매일 스케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었고, 리치는 사무실의 안뿐만 아니라 바깥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샘윤 시의원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며 그가 자신의 개인 생활,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시의원미팅 등등의 공적 생활간의 균형을 얼마나 탁월하게 조절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한 사람이 보스턴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뛰는 모습을 보며 계속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는 한 번도 정치와 제 미래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인턴들, 그리고 스태프들과 매일 일

을 하면서 사무실 안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사무실 생활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 경험은 저에게 미래를 향한 조그마한 통찰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라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으면 하는 일반적인 지성이 이 기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인턴 경험은 제 삶과 제 미래 커리어에 대한 제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 기회를 주신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여러분들과 샘윤 보스턴 시의원 사무실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I have to admit, As a high school sophomore with no former office experience and no political background, I was very nervous for my first day at work with Frank at the campaign office. After the KACL reception in April,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for my internship in the summer, but all I knew was that I was working for the first Asian-American City Councilor of Boston, Sam Yoon. However, as I first walked into the office wearing a suit, seeing Frank wearing jeans and a polo shirt was a major sign of relief because it showed a casual side to the office as well as the political seriousness involved. He introduced me to the other staffers in the office and made me feel comfortable in the workspace in which I spent a month learning new things everyday.

In one short month in the summer, Frank taught me all about the computer databases relating to Sam's campaign, everything from Sam's face book page to his contribution databases. I

learned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background of a political campaign. From small things such as mailing thank you letters and checking his daily emails to recording contributions, making calls and filing fundraising events, I experienced much more than I ever expected. One of the most valuable experiences I attained was writing a press release for the local Korean media. To see my own article about Sam Yoon appear in the Korea Times and on the front page of New England Korea Daily is truly unforgettable.

Talking about the fundraiser was nothing compared to actually being there. Since I was already in Manhattan attending a summer program while Sam's fundraiser was being held, I chose to help out and to witness Sam's charisma and fundraising success. During the short time there, I met a group of very successful Korean-Americans who were there to support Sam and his future political moves. Talking with them, made me feel as if I were a very important and successful Korean-American; this experience gave me a motivation toward my future career. During the fund raiser, Sam gave a speech which swayed peoples' mind towards his future vision for Boston. I admired his powerful and convincing speeches and I now practice to do the same.

Some other days during the week, I went over to Sam's office in City Hall to go over the press releases, database entries and other computer related issues with the other interns and staff. Not only was I amazed to be working in his office, but

I felt very welcome everyday by a group of amiable people. Mary, Dave and Rich welcomed me as I shyly walked into the office for the first time. Once again,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but quickly they took valuable time out of their own hands to find a task for me to do: Dave showed me how to organize Sam's daily schedules while Rich showed me and taught me the importance of a politician's job from inside the office as well as outside in the community. Then on, I realized how busy he was and how well he balanced out his personal life from his participation in community events and council meetings. It was truly remarkable and relieving to see such a diligent man working for the better change in the Boston area.

Truthfully, from the beginning, I had little interest in politics for my future career, but this experience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Working with other interns and staff members everyday, I built some office friendships and learned a lot regarding office life. As a high school student, this experience really gave me an insight into the future, not only in the political field, but introduced me to the general working mentality that every high school student should experience before they enter college. This experience has had a huge impact on my life and my future career path and I am tru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given to me by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Thank you.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 경제인 협회**

Korean American Commerce & Trade Association of R.I.

회 장(President): 이은우(Ryee, Eun U.)

사무총장(Secretary of General): 박헌조(Park, Hyun Jo)

전화: 508-588-6976



# 역대 정치 인턴 명단

1998	Thomas Kim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1999	Caroline Kim	Barnard Colleg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Daniel Kim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Attorney General's Office
	David Lee	Boston College	House of Representative / House Committee on Rules
	Sarah Park	Harvard University	Mass. State House / Gov. Cellucci's Press Office
2000	Eun Young Choi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Song Yee Han		
	David Kim	Tufts University	Senator Edward M. Kennedy's Office in Boston
	Benjamin Smith	Boston University	
	Irene Park James Uhm	Bowdin College Tufts University	State House / Gov. Cellucci's External Relations Dep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n Boston
2001	Min Suk Lee	Tufts University	Massachusetts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Yumee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s. Governor's Office
	Unok Nam	Mills Colleg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Doohyun Paek	University of Mass-Amherst	Mas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2002	Jennifer Myung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s in Washington D.C.
	Sonia Kim		
	Yumi Lee Chan Joung Lee	Georgetow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of the Mass. Governor's Office
2003	Min Young Lee	Boston Colleg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Hee Jin Lee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Kerry's Office.
	Heidi Yoo	Wesleyan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2004	Se Yeom Kim	Syracuse University	Massachusett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Jihun Kim		Gov. Romney's Office
	Jeong Mee Oh	Harvard University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Jia H. Ju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2005	Bomie Chae	U of Massachusetts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Hyejin Yu	U.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Eliza Cho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Jesse Sejin Kim	U. of Mass. Boston	City of Boston Mayor's Office.
2006	Angelina Hong	Williams University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 At-Large Sam Yoon
	Stephanie Chang	Northwestern University	Massachusetts State House
2007	Michael Dong	Bentley Colleg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Younyoung Lee	Georgetown University	Office of Congressman Doug Lamborn
2008	Yeonman Jung	U. of Mass. Amherst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Michael Shin	Groton High School, Groton, MA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aewon Lee,	Tufts University,	Mass.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0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U.S. Citizen: \_\_\_\_\_ Legal permanent resident: \_\_\_\_\_

Current Telephone Number: \_\_\_\_\_

Best time to call: \_\_\_\_\_

Current e-mail address: \_\_\_\_\_

Current Mailing Address: \_\_\_\_\_

\_\_\_\_\_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_\_\_\_\_

Permanent Telephone Number: \_\_\_\_\_

College: \_\_\_\_\_

Major: \_\_\_\_\_ GPA: \_\_\_\_\_

Expected Degree and Year of Graduation:

\_\_\_\_\_



##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0 Summer Internship Program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invite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o apply to its 2010 Summer Internship Program. Interns will be placed in the offices of U. S. Senators, Congressmen, or the State Government, or other places, and they will receive a stipend of \$2,000. At the end of their internship, they will be expected to write a one-to-two page essay describing their experience,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ACL.

KACL is a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KACL hopes to encourage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young Korean Americans, foster their interest in public policy-related careers, and develop their leadership skills.

### Eligibility Requirements:

- Applicant must be a current college/graduate school student in good standing.
-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merican origin.
- Applicant must be a New England resident or attend a college in New England.
- Applicant must have a minimum grade point average of 3.0 (on a 4.0 scale), along with evidence of leadership abilities and excellent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Please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Sang Chul Shin, 5 Dewey Road., Lexington, MA 02420

1. A brief essay (less than 500 words, eg why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ship program, how you can benefit from it, and the areas of interest).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package to the politician's office.
2. Resume Include educational information, work experience, volunteer experience, activities & other interests.
3. Current school transcript.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Addressed "To Whom It May Concern" because it may be forwarded to the politician's office).

**Applications must be postmarked by January 31, 2010**  
**Faxed or e-mailed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in Ma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SangChul Shin at (781) 862-0512(home), (781) 442-0531(work), (781) 405-8021(cell) or e-mail to Sang.Shin@Sun.com.

For information on KACL, please visit <http://www.javapassion.com/kacjne>



# 2008년 시민협회 활동보고

●사무총장/ 김 명 기

## 1. 제 17차 정기총회

2007년 10월 20일(토), Woburn 소재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김명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개최되었다.

제1부의 총회에서는 김성군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기도, 회순 채택, 협회 경과 보고 등이 있었고, 감사 및 재무보고에 이어 신입 이사의 인준 및 선출이 있었으며, 사업 계획과 예산안, 기타 안건 등의 순서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보스턴 온누리 교회 성도들께서 협조해준 다과를 들면서 친교의 시간이 밤 8시까지 있었다.

그리고 오늘, 2008년 10월 25일(토) 제 18차 정기총회가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 2. 시민협회 회지 제17호 발간

올해 4월의 정치 인턴 모금 파티에 맞춘 4월 1일부로, 이기영 편집위원장의 수고로 회지 제17호가 3,000부 발간되어,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가정을 비롯해 각종 단체 및 업소, 미전역 공공기관, 정치인들에게 배부되었다. 새로운 체제와 편집 방식 등으로 더욱 산뜻해진 이번 회지는 "미국대선"이 특집으로 게재되었는데, 다채로운 기사와 함께 지면이 110면으로 대폭 증면되었다.

누차에 걸친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원고 청탁, 광고 청탁 및 광고비 청구 작업 등이 있었고, 이에에는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고와 함께 특히 광고 모집을 위한 회장단 및 많은 분들의 수고와 협조가 있었다. 광고 게재를 통해 시민협회의 활동을 지원해주신 광고주들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민협회의 회지는 1호부터 8호까지 김명기 편집위원장이, 또한 9호부터 15호까지는 이의인 편집위원장께서 제작을 맡았었으며, 제16호 회지부터는 이기영 편집장의 수고로 발

간되고 있다.

## 3. 이사회, 임원회

2008년 2월 21일(목)에 Groton 소재 박필수 이사 자택에서 제59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정치 인턴 모금 만찬 준비 현황의 보고, 회지 발간 준비 현황 보고, 재무 보고 및 이사회비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정기 총회 결과 평가 및, 미국 대통령 선거 참여와 유권자 등록 촉구, 유권자 파악 캠페인, 기타 안건 등이 논의 되었다.

6월 21일(토)에는 제60차 이사회가 시민권 취득 워크샵 이후에 개최되어, 정치 인턴 모금 만찬 결과 및 인턴 배치 보고, 장학금 지급 현황, 회지 17호 발간 및 배부 보고, 광고비 수급 현황 보고, 재무 보고 및 이사회비 현황, 시민권 취득 워크샵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또한 정기 총회 준비, 회지 18호 발간 준비,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되었다.

9월 27일(토)에는 제 61차 이사회가 Canton 소재 보스턴 왕





갈비식당에서 이경해 부회장의 주선으로 부부동반 총 1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2008년 정치인턴(이재원, 정연만, 마이클 신)의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보고되었고, 시민협회 저널 3,000부가 미전역 공공기관과 정치인 사무실, 지역사업체에 배부 완료되었음이 보고되었다. 토의 및 의결 사항으로는, 정기총회 개최 준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경해 신임회장의 정기총회 선출 상정, 11월4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 권유 캠페인 시행, 신임 이사 추천, 2009년도 정치인턴 모금 만찬 준비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상임이사회를 위시하여, 인턴 모금 파티 준비 모임 등, 각종의 임원회의, 회지 편집회의 등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작년 10월에는 Maine주의 Dream Act 지지, 12월에는 한미FTA 지원, 그리고 올 1월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 선출 지지(샘윤 광역 시의원 및 일부 임원), 4월 10일 (목)에는 멀리 Washington State의 폴신 상원의원께서 샘윤 Boston 광역시원의원의 사무실에 오셔서 시민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또 9월 9일(화)에는, Kaya Restaurant에서 "시민협회와 보스톤 총영사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4.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

2008년 4월 12일(토) 오후 6시에, Woborn 소재 힐튼 호텔에 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이 개최되었다. 올해의 기금 모금 만찬은 11주년으로서 그동안 총 34명의 정치 인턴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는데(금년 3명 포함 총 37명 배출), 세계의 경제 상황이 불황인 탓을 반영해 올해는 참석이 예년보다 저조하였다.



제1부는 Christina Suh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Reception, Slide Show 이후에 보스톤 총영사 및 샘윤 시의원의 축사 등이 있었으며, 이어 디너와 3명의 인턴에게 각 1,500달러씩 총 4,500달러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강연에서의 연사는 김양길 이사장의 따님인 해연 줄리아니 김-무스타카스씨였는데, 세계 경제 현황, 정책, 위험경영 등에 대한 통찰력있는 강연이 있었다. 이어 Entertainment가 진행된 후 연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과 단체, 참석하신 여러분들, 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

#### 5. 시민권 취득 워크샵 개최

작년 총회일인 2007년 10월 20일(토)에 보스톤 은누리 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에 걸쳐 개최된 이래, 올해는 6월 21일(토)에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이 다시 개최되었다. 무료로 시민권 신청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이 워크샵에서는 협회 회장인 김성군 변호사를 위시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내년 10월부터는 개정된 시민권 시험 양식으로 되는 등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총원 30명, 특히 20대와 30대의 신청인이 반이 넘는 기대 밖의 상황을 이루었으며,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6. 샘윤 Boston 광역시의원 재선 당선

2005년에 시민협회와 한인들의 후원 등으로 당선되었던 샘윤 보스톤 광역시원의원의 재선을 위한 후원 모금 디너 파티가 지난 2007년 9월 23일(토요일)에 김양길 이사장님께서 개최되었음에 이어, 마침내 11월 9일, 압도적인 득표수로 샘윤 광역시원의원이 재선되는 쾌거가 있었다.

한편 한인회보 및 보스톤코리아, 뉴잉글랜드 한인연합신문, 주간 연애포츠 등의 신문 지상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시민협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주요 기사로는 후원모금 파티, 시민권 취득 워크샵, 총회 등을 들수 있고, 각종 행사의 공고가 게재되었다.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 한인-미국 동포 2세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돕는 장려사업을 추진한다.

#### 제5조: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제9조: 경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인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전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 1. 회장 1명
- 2. 부회장 5-6명
- 3. 사무처장 1명
- 4. 재무 1명
- 5. 대변인 1명
-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처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

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부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사업을 분담받아 책임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의 각 기능별 위원회의 지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하며, 사무처장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관하여 추진하고, 고문의 자문과 협조를 받는다. 이를위하여 과업수행에 따라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수행단 결성, 책임자, 특별위원을 지정하여 운용할수 있다.

4. 사무처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현장 개징**

**제21조**

본 현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1. 이 현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 4. 제3차 개정: 2005년 10월 29일



#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 Article I General

####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 (7) To help activities for Korean-American second generation to actively involve in political activities.

####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and collaborate with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rganizations.

### Article II Membership

####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 Article III Organization

####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once a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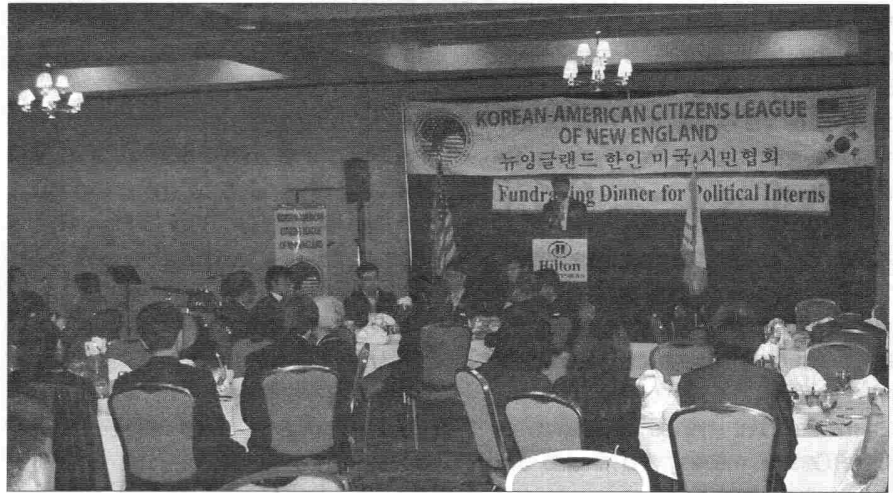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



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five or six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Vice President takes charge to perform shared and assigned duties in an efficient manner together with Executive Director and each concerned Committee Chair. To this end, Vice President may implement task forces, and assign special ad-hoc committee members with the approval of Executive Body.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 Article IV Finance

####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 Appendix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 Amendment

1. The First Amendment: October 1, 1994

2. The Second Amendment: October 19, 1996

3. The Third Amendment: October 29, 2005



# KACL-NE Financial Statement

(Period: 10/21/07~ 10/25/08)

## Income Statement

Board of Directors Due	\$2,600.00
Membership	\$1,110.00
Journal Ad.	\$9,050.00
Political Internship event interest	\$14,605.00
	\$569.59
<b>Total</b>	<b>\$27,934.59</b>
Pre. Balance	\$24,324.69
<b>Grand Total</b>	<b>\$52,259.28</b>

## Expense

Telephone	\$843.84
Office Supplies	\$323.58
Postages	\$144.00
Political Intern	
Event	\$9,997.95
Scholarship	\$2,500.00
Printing	
Journal	\$7,450.00
Other	200.00
Donations	\$1,759.97
Membership	\$40.00
Meeting (Board, Annual)	\$420.00
<b>Total</b>	<b>\$23,679.34</b>
Balance	\$28,579.94
<b>Grand Total</b>	<b>\$52,259.28</b>

## 2009년 수입 · 지출 예산

### ●수입 예산

회비 : \$10x200명	\$2,000.00
이사회비 : 30명	\$6,000.00
협회지 18호 광고 수입	\$10,000.00
정치인턴 모금파티(*)	\$12,000.00
기타 잔준비	\$3,000.00
<b>총계</b>	<b>\$33,000.00</b>

### ●지출 예산

협회지 18호 인쇄비, 발송비	\$8,000.00
유급 사무요원 보수	\$2,000.00
광고비, 타 기관 지원비	\$1,000.00
이세 활동 지원비	\$1,000.00
정치인턴 장학금(*)	\$6,000.00
정치인턴 모금 파티 경비(*)	\$7,000.00
제19회 총회 경비	\$1,000.00
전국 대회 참가비	\$1,000.00
은행 경비 및 기타	\$200.00
우편비	\$500.00
사무비	\$500.00
비품비	\$1,000.00
전화비	\$900.00
예비비	\$2,900.00
<b>총계</b>	<b>\$33,000.00</b>

##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 ● 임원 (OFFICERS)

회장	이경해	President Dong, Kay Email: kayleebrokers@aol.com	103 Chase Run, Stoughton, MA 02072	H: (781) 344-3089 O: (800) 867-9000 Fax: (781) 341-8239
부회장	신상철	Vice President Shin, Sang Chul Email: sang.shin@sun.com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2-0512 O: (978) 442-0531 Fax: (978) 547-2077
사무총장	김경기	Executive Director Kim, Michael Myungki Email: hegroupp@hanmail.net or hegroupp@msn.com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Fax: (603) 659-5488
재무	김양길	Treasurer Kim, Yang-Kil Email: yangkil.kim@comcast.net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대변인	서예진	Spokesperson Suh, Christina Email: csuh99@bc.edu	10 Bowdoin Street #206 Boston MA 02114	O: (617) 732-6861

### ● 이사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김양길	Chairperson Kim, Yang-Kil Email: yangkil.kim@comcast.net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부이사장	김성균	Vice Chairperson Kim, Song-Kun (Esq.) Email: songkkim1@gmail.com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H: (978) 664-1417 O: (781) 438-6170 Fax: (781) 438-6177
감사	김문소	Auditor Kim, Moon So (DVM) Email: moonsokim@comcast.net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978) 475-3534 O: (978) 851-3626 Fax: (978) 851-6408
이사	김벤자민	Board Member Kim, Benjamin, W. Email: uncleben@hanmail.net or benkim231@gmail.com	742 Centre Street Newton, MA 02458	H: (617) 630-9433 C: (617) 799-2546
이사	최홍균	Board Member Choi, Hong Kyun (PhD)	18 Terrapin Lane, Sharon, MA 02067	H: (781) 784-7567 O: (508) 824-6696 x512 Fax: (508) 822-1381
이사	박경민	Board Member Park, Kyung Min (MD, PhD)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493	H: (781) 899-5009 Fax: (781) 899-4675

이사	정석호	Board Member Chung, Paul S.	650 Beacon Street, Boston, MA 02115	H: (617) 928-1023 O: (800) 473-1922 Fax: (617) 267-5009
이사	강세현	Board Member Kang, Sae Hyun	576 Dutton Road, Sudbury, MA 01776	H: (978) 443-2509 C: (617) 694-5264
이사	김기석	Board Member Kim, Kisuk	1 Terrace Rd., Weston, MA 02493	H: (781) 899-3453 O: (617) 332-2800 Fax: (781) 891-6083
이사	이의인	Board Member Lee, Eui In (PhD)	7 Goffe Rd., Lexington, MA 02421	H: (781) 862-5270 O: (781) 981-4544 Fax: (781) 981-0783
이사	김은한	Board Member Kim, Eun Han (MD)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1-0437 O: (781) 665-8912 Fax: (781) 860-9028
이사	노명호	Board Member Lowe, Myeong Ho	1370 Mass Ave., Arlington, MA 02476	H: (781) 595-4065 C: (617) 767-5693
이사	박대위	Board Member Park, David	107 Scotland St., Hingham, MA 02043	H: (781) 740-1286 O: (617) 719-8200 Fax: (781) 740-8032
이사	박필수	Board Member Pak, Phil S.	115 Wharton Row, Groton MA 01450	H: (978) 448-8877 O: (978) 448-8383
이사	김강호	Board Member Kim, Kang Ho	8 Cuba Street Andover, MA 01810	H: (978) 470-3987 O: (781) 663-4465 Fax: (781) 663-4759
이사	김원주	Board Member Kim, Won Ju	10 Rogers St., Apt.215, Cambridge, MA 02142	H: (617) 494-1591
이사	성 데이비드	Board Member Sung, David	329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6	O: (617) 731-1122
이사	장경우	Board Member Chang, Aaron Jungwoo	47 Linden St. Allston, MA 02134	C: (413) 636-5148 Email: aaronjwchang@gmail.com
이사	이상우	Board Member Lee, Sang Woo	81R Union Street, Newton, MA 02159	O: (617) 964-8004 Fax: (617) 969-8234
이사	그레이스리	Board Member Lee, Grace H. (Esq.)	Dept. of Treasury One Ashburton Pl., 12th Fl Boston MA 02108	O: (617) 367-9333 Fax: (617) 367-3645
이사	김성혁	Board Member Kim, Sung Hyuck	693 Main St., #7, Amhurst, MA 01005	H: (413) 253-7669 Email: sunh999@yahoo.co.kr
이사	김선미	Board Member Kim, Sun M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Email: hegrop@hanmail.net
이사	방경남	Board Member Bang, Kyoung Nam	10-12 Ceder St. Wellesley, MA 02481	W: (508) 655-5004
이사	박형수	Board Member Park, Hyung Soo	20 Winfield Road Hingham, MA 02043	H: (781) 413-7816 Email: howardpark@comcast.net

# 뉴잉글랜드 한인 업소록

## The New England Korean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	800-799-7233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국세청	800-829-1040
그레이하운드버스	800-231-2222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6-5400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617-492-8300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암트랙	800-872-7245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자동차등록	800-858-3926
적십자	800-564-1234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b>기관·단체</b>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433-2099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885-4900
메인한인회	207-807-6994
커네티컷 한인회	203-257-242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902-1111
뉴잉글랜드 골프협회	603-401-7990
뉴잉글랜드 공군전우회	617-230-1002
NE 교역자협의회	617-469-4289
뉴잉글랜드 노인회	603-585-7082
뉴잉글랜드 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세탁인협회	978-685-4979
<b>뉴잉글랜드 시민 협회</b>	<b>508-962-2689</b>
뉴잉글랜드 교회 협의회	781-393-0004
뉴잉글랜드 해병대 전우회	339-225-0322

대메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01-474-5960
보스톤 가정상담소	800-210-2331
보스톤 대한체육회	978-902-9033
과학기술자 협의회	781-913-3920
625 참전 유공자회	978-475-3971
이북5도민 연합회	413-535-0916
한인학교 NE협회	508-523-5389
재향 군인회	339-298-1187
FE 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입양 아동회(메인)	207-878-5652
NE 학교협의회	617-232-1708
NE 한국학교	508-798-2677
<b>언론</b>	
한인회보	781-395-6968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KAP(한인연합신문)	617-820-5128
<b>간판</b>	
초이스간판	617-889-0984
<b>개신교</b>	
갈보리 교회	413-789-9888
구세군 보스톤 한인 교회	617-542-5420
NE 한인감리 교회	781-646-1050
라이스 한인 침례교회	508-393-5313
렉싱턴 한인 교회	781-771-9660
목양 교회	781-793-9330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늘푸른교회	617-739-4977
보스톤 사랑의 교회	617-789-5683
보스톤 산성장로교회	617-926-7195
보스톤 새누리한인교회	617-286-2534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선교교회	617-789-4964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647-0190
보스톤 시온성교회	781-275-9327
보스톤 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열린 교회	617-325-8703
보스톤 영광교회	978-658-0150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 침례교회	508-393-8455
보스톤 중앙교회	617-731-4381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781-863-8463
북부보스톤 연합감리교회	978-470-0621
성요한 교회	781-275-2524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628-9626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413-783-6636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시온교회	413-772-6926
안디옥교회	508-534-3394
앤서스트 한인장로교회	413-649-0604
예루살렘 침례교회	508-836-2628
우스터교회	508-799-4488
월담한인교회	781-893-0128
은혜교회	617-643-0463
좋은 감리교회	617-441-5248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617-861-3877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617-491-1474
퀸지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한인성서침례교회	508-263-8459
<b>불교·원불교</b>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보스톤교당	617-666-1121
<b>천주교</b>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617-244-9685
뉴햄프셔 한인 천주교회	603-552-8212
커네티컷 한인 천주교회	203-937-6371
<b>건축</b>	
김스종합 건축	617-513-1244
무지개 건축	978-855-4763
미남 건축	508-650-8844
선아 건축	508-230-5878
원덕수 설계사무소	617-731-1102
이동익 설계사무소	978-470-1793
장스건축	401-274-6088
한샘(주)	781-487-0101
한영건축	617-547-0211

JC건축	781-738-7871
LEE'S건축	617-538-0558
<b>냉난방·배관</b>	
J. J. & C Inc.	617-839-7135
P.S.I.	617-547-0211
<b>노래방</b>	
도레미 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b>떡집</b>	
형제 떡집	978-975-3303
<b>동물병원</b>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b>동창회</b>	
건국대학교 동창회	401-738-8735
고려대학교 동창회	617-441-9713
동래고 동창회	617-738-4714
배재중고등학교 동창회	978-965-7144
서울대학교 동창회	978-353-1882
서울신학대학교 동창회	617-489-8855
성균관대 동문회	802-734-2521
이화여고 동창회	978-409-0101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781-235-4035
중앙대학교 동창회	603-622-8883
<b>미용실</b>	
가위소리	617-782-8111
김씨네 머리방	617-739-1067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심미경 헤어센터	617-767-9415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b>변호사</b>	
김성군 변호사	617-482-1300
김연진 변호사	617-742-7707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장우석 변호사	978-794-5520
Steven S. Kim	617-973-5110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생선가게		후지 식당 메인-	207-773-2900	주류	
Young Lee Danish 변호사	617-367-4949	Boston Fish	617-282-2980	희빈 회관	978-686-0389	진로소주	617-629-7765
		Captain Boston Fish	781-395-8138	ZEN 320	617-566-7800	OB, 카스맥주	781-983-6236
		Sea to You	617-350-0130				
<b>보험</b>		<b>선물용품</b>		<b>식품점</b>		<b>지압·단전·스파</b>	
김세경 보험 MetLife	508-995-2600	소라 화장품	617-876-7200	고향 식품	413-586-2682	단센터 브룩클라인-	617-264-4851
고영복 보험MetLife	978-646-3042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대한 식품	781-788-0030	마음수련 센터	617-935-1824
알파 종합보험	617-782-8800			미래 식품	401-941-9419	명상 수선재	617-492-3492
전계연 보험	978-335-6074			롯데종합 식품	617-661-1194	한국 지압원	617-278-0275
		<b>식당</b>		미림식품	617-783-2626	CHO'S SPA	781-231-0606
<b>부동산</b>		가든 하우스	978-691-5448	서울식품	603-626-1334	FOOT REFLEXOLOGY	603-585-7082
가나안 부동산	617-782-7200	가야 식당 (캠브리지)	617-497-5656	신신식품	978-686-0813		
김현구 부동산	617-694-0985	고향 식당	413-586-2682	쌍둥이식품점	508-798-2547	<b>태권도</b>	
김현정 부동산	617-388-8527	궁전레스토랑	603-882-8644	Sun 동양식품 메인-	207-772-8675	김영곤 태권도장	978-688-1037
백영주 부동산	978-239-0141	뉴장수 갈비	781-272-3787	아시아요 식품점	508-875-3634	박선우 태권도장	603-433-2099
송기백 부동산	781-510-9924	다모아 그릴	617-783-2116	아시아나 식품	401-438-9992	Alpha TKD Academy	978-256-4904
송현미 부동산	617-835-7664	다빈 식당	781-860-0171	우리 식품점	978-772-1772	Ans TKD	978-453-5387
신태순 부동산	508-435-6333	다오라 스시	508-587-3920	은혜 식품	603-893-8511	Central Institute of TKD	617-776-6161
에이블 부동산	617-783-8812	다이아 마이트	603-889-0055	제일 식품	413-592-5452	Cho Olympic TKD	617-630-5137
이경해 Lee Associates-	800-867-9000	다케무라 일식	617-492-6700	진미 식품	617-964-2688	Cho TKD Academy	781-235-3037
이정선 부동산	617-783-8812	리틀 부산	978-897-5107	청계 식품	978-772-5213	Choe TKD Academy	508-852-0009
정해운 부동산	603-770-3491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청정 마을	617-202-3791	Choi TKD Academy	413-736-1008
Joy Lee 부동산	781-249-5838	만나 스시	781-648-8878	한국종합 식품	617-623-9620	Jae Jo TKD	508-820-1618
		물레방아	617-423-3889	한아름 식품	617-547-8723	Jae Kim TKD	617-266-5050
<b>비디오</b>		미나도	508-647-0495			Kwon TKD Academy	978-858-3699
한국 비디오	617-628-0226	미나토 스시	617-731-5200	<b>여행사</b>		Lee TKD College	781-575-1777
		미소노	617-325-9919	오리엔트 여행사	800-446-4345	Park's TKD Academy	978-345-3007
<b>병원</b>		Mr. 스시	617-731-1122	유니버스 여행사	888-686-1708	World TKD Academy	781-942-2299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안광원 내과	401-331-2130	민속 횡집	617-731-7889	하나 여행사	800-368-6977	<b>택시</b>	
오상익	617-632-1070	바다 횡집	617-787-2400	IACE 여행사	617-424-8956	보스톤 콜택시	617-783-1234
이재웅 내과	201-673-4237	Cary's Catch(구 뉴욕식품)	781-862-7987			태양 콜택시	781-391-7700
정태진 내과	617-298-1169	북경 반점 1	617-623-7220	<b>운송·이사</b>		한국관광 콜택시	508-475-4000
한서동 내과	401-722-0305	북경 반점 2	617-254-2775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56-9655		
강길원 산부인과	978-957-4660	사라 식당	603-624-0770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785-2397	<b>한의원</b>	
김일 산부인과	978-978-0098	사보로	617-964-8044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5-2397	경희한의원	617-232-0110
최의웅 산부인과	401-726-0600	쌍둥이 식당	508-797-4009			광개토 한의원	781-643-3679
이문노 산부인과	508-427-3000	CHO CHO'S 순두부	617-868-4246	<b>이발관</b>		일선당 한의원	617-787-4503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시 킹	617-972-8580	한국이발관	617-278-0275	New Life Health Center	617-524-9551
정삼국 소아과	508-234-7311	신라	617-547-7971	한인이발관	617-783-3213		
배주은 신경정신과	617-566-1055	아리랑 식당	617-536-1277	<b>인쇄소</b>		<b>회원</b>	
양미아 화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압구정	617-527-7888	큰나무 인쇄소	508-879-4285	Anderson Florist	781-894-1843
임나경 심리상담소	617-738-9622	아수	617-738-2244			Mystic Florist	617-686-3116
최구미 심리상담소	978-686-4376	요시 식당	617-623-9263	<b>자동차경비</b>			
성진 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요코 하마	978-689-4047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b>회계사/세무사</b>	
한경애 재활의학	617-636-3003	우정 식당	978-772-5742	태양자동차 정비	781-391-7700	김양일	617-491-4959
		우촌 식당	617-623-3313	Foreign Motor West	508-237-1212	김창근	781-935-4620
<b>치과</b>		이나카	978-794-9806	Sooner Lube	978-858-0070	이현주	781-944-2442
김영호 치과	781-894-1127	청기와 식당	781-391-5806	글렌빌 테라스	617-783-1515	정진수	508-584-5860
말보로패밀리 덴탈	508-480-9299	칼라 분식	617-787-5656				
송백중 치과	617-264-9968	코리아나	617-576-8661	<b>제과</b>		공예마을	617-349-3666
신영록 치과	617-265-5606	하나 스시	617-868-2121	서울제과점	617-787-6500	성주영 Financial	781-890-4599
안 치과	781-647-8000	한강	617-739-6221	형제떡집	978-975-3303	김남물 뉴욕라이프 보험	781-398-8580
엑셀패밀리 덴탈	617-471-6970	한마루	617-779-7907				
케임브리지 덴탈어네스	617-871-1482	형제 식당	603-622-9377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가위소리

scissorsoundhair

617-782-8111

11-17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www.scissorsoundhair.com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New England

100 Winthrop St. Medford, MA 02155

Tel.(781)393-0004

회 장: 김정수 목사 부회장: 조태연 목사 부회장: 김성인 목사

총 무: 송평구 목사 회 계: 박원빈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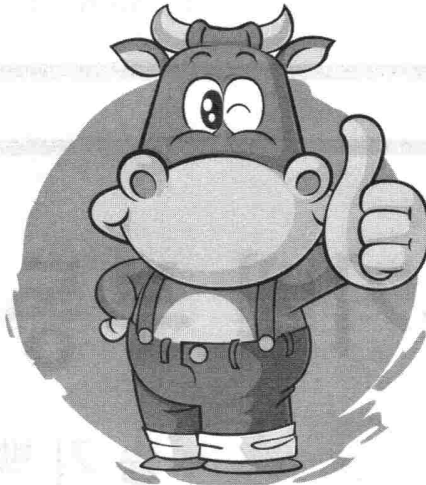
실행 위원/ 한상신, 강명석, 최영호, 전덕영, 김영호, 이영길, 조태연, 박찬수, 김태환,  
경경조, 김면진, 김 풀(무순)



시민협회의 제8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 천연 조미료와 손 맛으로 가족의 건강까지담았습니다

7 Days Open  
10:00am ▶ 9:00pm



청정마을의  
반찬과 고기가  
일품입니다!!

## 청정마을

75 Linden street Allston MA 02143

617-202-3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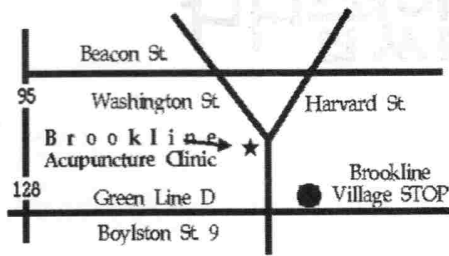
# 경희한의원

월, 화, 목 : 9시~6시  
수, 금 : 12시~8시  
토 : 9시 ~ 2시

요즈음처럼 날씨가 흐리고 추우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결림, 수심, 저림, 통증 등등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6년제)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0여년간 임상경험을 쌓은 한의사와  
New England School of Acupuncture를 졸업한  
Acupuncturist가 협력하여 Brookline Village에  
개업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갖  
고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한의사 오훈섭(HoonSup Oh)  
Acupuncturist: 최지현(Alice Choi)

617-232-0110 / Fax 617-232-0114  
214 Washington St., Brookline, MA 02446

# 송기백 부동산



송기백

Gi Baeck Song

(781) 510-9924

gisong@comcast.net



주거용 주택 및 콘도  
사업용 건물, 투자형 건물  
투자형 콘도 및 아파트

주택시세 무료감정  
원하시는 지역에 알맞는  
건물을 찾아드립니다

144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미 연합 감리교회

# 성요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려 노력하는 성요한 교회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넓은 주차장과 동서 사방에서 오시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담임목사 : 조 상 연 목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새벽 예배: 오전 6시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30분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8시 교회학교초등부: 오전 11시30분

교회학교중고등부: 오전 11시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성요한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요한 한국학교 교장: 김현경

문의 전화(교회): 781-861-7799 교장: 978-994-6177

www.sjkschool.com

주소 :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전화 : 781-861-7799

팩스 : 781-861-7228

이메일 : Korean@Lexumc.org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요가 및 태극권 - 매 주 화-금 오후 7시 30분

## 불수사

Tel. (781) 224-0670, 224-2536

Fax. (781) 224-1087

# 보스톤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박형준 목사

주일한어예배: 오전 11시30분  
 주일영어예배: 오후 2시  
 꿈이 자라는 땅(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파워웨이브(청소년)예배: 오전 11시 30분  
 금요 경배와 찬양: 금요일 저녁 8시  
 여성 큐티 모임: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순예배

I-93으로 오시는 경우: Exit #36 Montvale Ave  
 좌회전 Montvale Ave  
 우회전 Washington St.  
 좌회전 Pine St.  
 I-95으로 오시는 경우: Exit #36 Washington St.  
 우회전 Washington St.  
 우회전 Cedar St.  
 Cedar St. 이 Salem St.로 좌회전 Pine St.



주소: 73 pine St. Woburn, MA 01801  
 전화: 781-933-7044 <http://boston.onnuri.or.kr>

담당교역자

협동목사 : 크리스 해리슨 목사  
 성인교육 : 조정민 전도사  
 영어예배 : 송재호 전도사  
 대학청년부 : 이형욱 전도사  
 청소년부 : 남기학 전도사  
 어린이부 : 박희규 전도사

교회버스운행 시간표

팔호안역 시간은 영어부 버스운행 시간표임  
 10:00(12:00)@Berkeley 연컨 도너츠앞, 10:15(12:15)@BU TSAI center  
 10:30(12:30)@OC St. Ignacio Church in Lower Campus  
 10:45(12:45)@Harvard Square(In front of EMS Sports)  
 11:00(1:00)@Tufts(In front of the Memorial Steps)

은 세상을 위한 교회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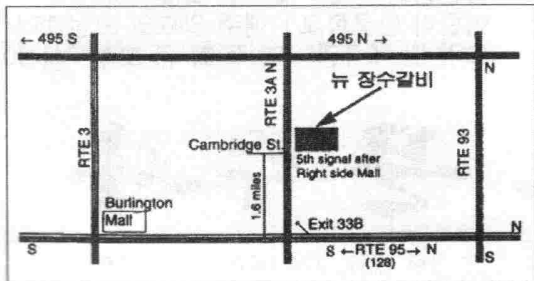
# 뉴장수갈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갈비 경력 18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대형 무료 주차장



OPEN HOURS

화-금: 11am-10pm  
 토-일: 12am-10pm  
 \* 매주 월요일 휴업

781-272-3787

260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 내슈아 한마음 한인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 목표 1. 성경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교회 2. 초교파적 복음중심의 선교하는 교회  
3.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 교회

## 한마음교회 성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고후5:8)”

담임목사: 정 태현 (Pastor Tae Hyun Chung)

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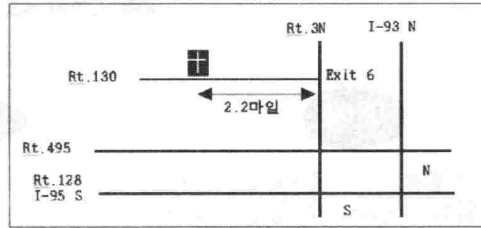
전화: (603)889-2078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888-8040

교회: Fax: (603)889-8418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유년부 교육	주일 오후 1시 30분
주일 성경공부	주일 오후 3시 45분



Rt.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북부 보스톤 교회

미연합감리교회

[www.hanboston.org](http://www.hanboston.org)

담임목사: 홍석환

1부 주일예배 :오전 8시

2부 주일예배:오전 11시 (동시통역)

새벽기도회:오전 6시(월요일-토요일)

수요찬양예배:오후 8시

중고등부예배:오전 9시 30분

중고등부 성경공부:토요일 오후 6시

유년주일학교 예배:오전 11시

영어 예배:오후 1시30분

주일 성경공부:오전 9시30분



244 Lowell St., Andover, MA 01845

978-470-0621





#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 770-2755 (Tel/Fax)  
www.Quincychurch.org

## 예수 안에서 충만한 교회

담임: 이충남 목사(201-424-8643)  
목회협력일 천인부: 전근호 목사  
행정일·사무: 최경아 전도사  
교육: Davr Kang 전도사

은혜 충만한 예배  
사랑 충만한 구역  
기쁨 충만한 사역

###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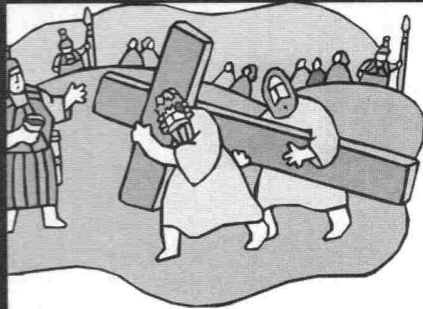
주일예배: 주 일 2:00 pm  
주일학교(영어): 주 일 2:00 pm  
아침 기도회: 월-토 6:00 am  
                  주 일 8:30 am

### 모임 및 성경공부

주부성경공부: 화 11:30 am  
수요성경공부: 수 7:30 pm  
청년선교회: 금 7:30 pm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수 시

### 퀸지한국학교

토요일 9:00 am



1부예배 : 주일 오전 09:30  
2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아동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08:00  
새벽기도회 : 월~토 아침 06:00

# 보스톤 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정찬  
부목사: 김재현, 조광현, 현재규

781-275-8283

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 01730

# 사업과 부동산 무료상담 !!

## 1-800-867-9000

보스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결실을 드립니다.

- 상가, 건물, 콘도, 아파트 건물 투자하실분 환영.
- E2 비자 사업체 무료 상담, 비즈니스 무료 상담.
-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 부동산(주택, 상업용)
- 비즈니스 부로커(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자세한 리스팅 안내는 아래의 인터넷주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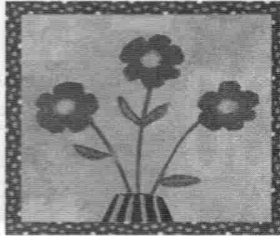
www.leebrokers.biz  
e-mail: leebrokers@gmail.com

이경해(Kay Dong)  
Tel: 781-297-5679  
Cell: 508-962-2689  
Fax: 781-341-8239

# LEE ASSOCIATES

Best of the Best 99,2000

# Anderson Florist



Wedding , Functions, Funeral  
Ballons, All Occasions, Plants  
Fruits/Courmet Baskets

226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781.894.1843, Fax: 781.894.5161

## 미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회계정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공인세무사

김창근

TEL: (781) 935-4620 FAX: (781) 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24 Woburn, MA 01801



# RE/MAX®



HELEN CHO

- ▶ 매매(Purchase & Sale)
- ▶ Mortgage알선
- ▶ 무료감정

155 Otis Street Northborough, MA 0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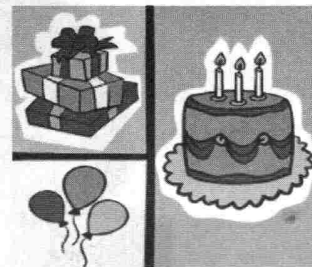
Office 508) 351-1584 ext.702

Toll Free 800) 879-0108

Cellular 508) 579-4314

한국빵과 케익의 명문

# 서울제과



영업시간(7 Days Open)

월-일 오전 7:30-오후 10:30

Tel.: (617)787-6500

56-8 Harvard Ave., Allston, MA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3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www.firstkoreanchurch.org / e-mail taewhan@comcast.net  
Tel. (617) 491-1474

## 교회의 비전

- (1) 한국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하여 복음주의 신앙공동체를 이룩한다.
- (2)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
- (3)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다.
- (4) 세계에 봉사할 인재를 배출한다

교회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www.firstkoreanchurch.org](http://www.firstkoreanchurch.org))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일설교 등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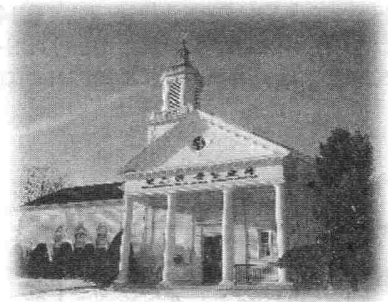
# 보스톤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부터 자유로)
- ◆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주일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 수요일 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 ◆ 유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 ◆ 중, 고등부 (주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6시)
  - ◆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7시)
  - ◆ 영어 성경반 (주일 오전 10시)
  - ◆ 여성 성경공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
  - ◆ 노인대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 구역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 435-4579  
팩스 (508) 435-5467



홈페이지: [www.bostonkorea.org/](http://www.bostonkorea.org/) 이메일: [kpcgb@naver.com](mailto:kpcgb@naver.com)  
담임목사: 전덕영목사/교육목사: 조경현, 이지형  
영어예배: 전세훈 (Joseph)/유치부: 노현경/유년부: 김유진 (Peggy)  
중고등부: 김은철 (Lonnie)/유학생중고등부: 우석운 (Kane)/전도담당: 한상륜  
시무장로: 송남수, 김유명, 김성인, 김재을

# Bethany Presbyterian Church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Church: 617-731-7706 Fax: 617-739-2663

Visit us on the Web at <http://www.BethanyBrookline.org> for information, directions, news and other resources. Any questions, please email us at: [staff@BethanyBrookline.org](mailto:staff@BethanyBrookline.org).

**Sunday Worship**  
 2:30 PM in the Main Sanctuary

**Saturday Morning Prayer Meeting**  
 Prayer Meeting is at 10:00~11:00AM

**Growth Group Bible Study**  
 Weekly Bible Study Groups meet all over the city  
 Contact Paster Chung to join a group

**College Group**  
 Friday Night Bible Study at 7:30 PM meets at Church. Please contact Kevin Ti for more information at [staff@bethanybrookline.org](mailto:staff@bethanybrookline.org)

Our Church is a second generation independent church established on September 28,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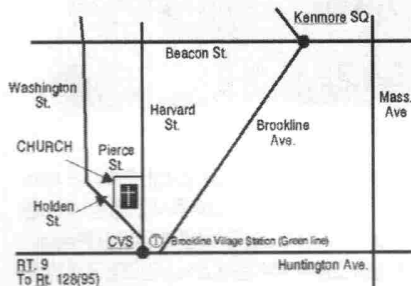
미국 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U.S.A.) Founded in 1953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Internet: <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목사관: (617) 469-4289



<교회학교 성경 공부>

새신자반	오전 10:30 (주일)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30 (주일)	
수요 여성 성경 공부	오전 10:30 (수요일)	
영어 예배부	오후 7:30 (금요일)	보스톤 한국학교
청년 1부	오후 7:30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12:30(토)
청년 2부	오후 7:30 (금요일)	전화: (508)431-1351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영어동시통역(2부) 오후 12:00  
 유년부 예배 오후 12: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00  
 영어 예배 오후 2:00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603) 430-2929, 430-1115(교회) 430-0040(Fax) 433-7475(목사관)  
www.greenumc.org / E-mail: info@greenumc.org



담임목사: 한상신  
Rev. Sang - Shin Han  
Senior Pastor

협동목사: 댈위버  
교육목사: 박원준, 전도사: 임미순

주일예배: 10:30AM(주일), 주일학교 10:30AM(주일)  
새벽기도: 5:45AM(월~토), 성경공부 7:30PM(수)  
중보기도 8:00 PM(금), 한국학교 1:00PM(목)

교회는 뉴햄프셔 주의 95N Portsmouth 와 Stratham사이  
Greenland에 있습니다. Rt.33번 선상에서 Great Bay Road  
로 들어오시면 넓은 초원 위에 흰 교회가 있습니다.



하바드 스퀘어에  
샤부 샤부 전문점  
샤부야  
탄생

## Shabu·Ya

위치  
하바드 스퀘어  
신라식당 / 스테이플스 건물 2층  
57 JFK Stree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www.shabuyarestaurant.com

주차정보  
샤부야에서 걸어서 3-4분 거리인  
찰스호텔 주차장에 오후 3시 이후에  
주차하시면 \$5.00 입니다.

넓고 상쾌한 나무야윈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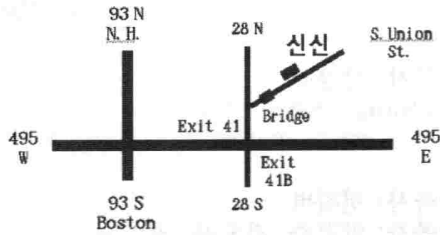
제1로넌기차마브로스

스페셜로부터 사시마까지



# 신신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영업시간  
월-토: 오전9시-오후8시 일요일: 오전9시-오후6시  
978-686-0813  
603 South Union St., Lawrence, MA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 형제떡집



백일, 톨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 01844  
(97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  
01976  
(978) 851-4182

한방은 한의사에게

一善堂 漢藥房

# 일선당 한약방

E. SHAN TANG

OPEN HOURS  
화-일 (Tue-Sun): 10:00am-5:30pm  
월 (Mon): 휴무 (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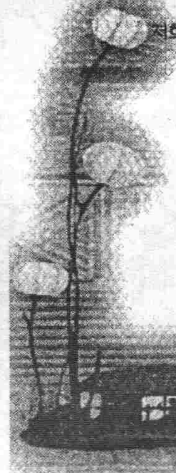
B.J. WANG



Comm. Ave. Brighton, Ave.

17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 (617) 787-4503 Fax: (617) 787-4519

# 공예마을 Craft Village



최희 공예마을은 한국의 전통 종이한지를 이용하여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그릇, 가구, 전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지공예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도 느끼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지공예완성품(주문제작)판매  
생활자기판매(인형, 화병, 향꽂이)  
비즈약세사리 등 생활소품 판매  
한국 전통수공예품 판매

한지공예수강생 모집합니다.  
한지공예 생일파티

www.thecraftsvillage.com

617.349.3666 617.669.9261  
2302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결세 상담
- 융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여(Payroll)서비스

공인 회계사 (C.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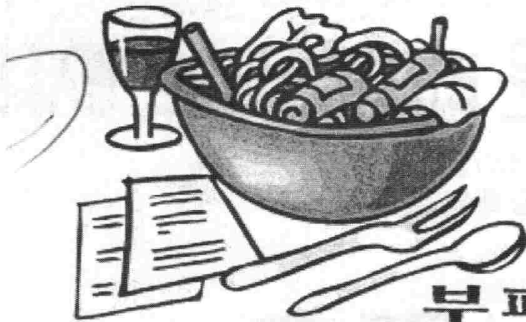
## 정진수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508-580-3946 (한인 전용)  
508-584-5860



◆ 월~토  
Lunch  
11:30 AM~4:30 PM  
Diner  
5:00 PM~10:00PM  
◆ 일  
12:00~10:00PM

부페전문식당

# 아리랑 하우스

● 캐터링 문의 (617) 536-1277

162 Mass Ave. Boston, MA 02115 Tel: (617) 536-1277

# 송현미 부동산

Hyunmee Elaine Song  
(Realtor, ABR, SRES)  
New Home Specialist



Ranked #1 Real Estate

realtorsong@gmail.com

Elaine.Song@NEMoves.com

www.NewEnglandMoves.com

http://cbnet.coldwellbanker.com

Direct: (617)835-7664 Voice: (781)446-6606  
Office: (781)862-2600 Fax: (781)863-8762  
25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보스톤 직항로 운영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해 진 고객 서비스

## 대한통운 리무진 서비스 개시 !!

귀국이사/국제택배/장단거리이사/창고보관/  
수입통관/수출입 해상,항공화물

# 대한통운

2 SHARKER RD. #D-108 SHIRLEY, MA 01464

TOLL FREE **888-239-9377**

TEL 978-425-4448/4459/4460 FAX 978-425-4428

http://www.ke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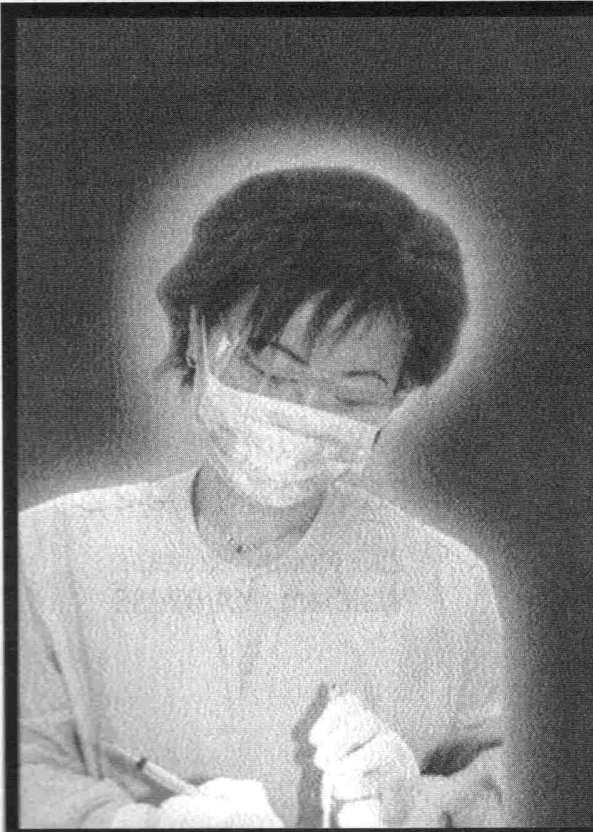
e-mail: yoon@keusa.com

www.kccboston.org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정광호 도미니코

주일미사: 오전 11시 30분	성령기도회: (목) 오후 8시
토요 청년미사: 오후 5시	레지오: (일) 오전 10시
평일미사: (목) 오후 7시 30분	(화) 오전 10시 30분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파티마 셀 기도: (화, 금)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수) 오후 8시	성소후원회: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일) 오전 10시 30분	성가대 정기연습: (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학교: (일) 오후 1시 30분	M.E. 모임: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7시

**617-244-9685**  
 1518 Beacon Street, Waban, MA 02468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Cambridge Dental Annex**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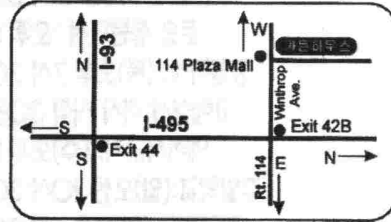
897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617-871-1482



# 가든하우스

한국식 중화요리 및 한식전문

특미  
짬뽕 짜장



Tel (978)691-5448  
108 Winthrop Ave.,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Tue-Sat. 11:30am-10:00pm  
Sunday 12:00-10:00pm  
(매주 월요일 휴일)

안 태 준, D.M.D.  
Laser Dentistry, Cosmetic Dentistry

문 유 경, D.M.D.  
Family Dentistry

강 병 영, D.M.D. 소아치과

권 태 진, D.M.D. 치주치과

**Laser Dentistry**

**Biolase**

**Digital Radiography**

**Intraoral Camera System**

Preventive: X-rays, 치식제거, 치료 상담, 충치예방, Fluoride Treatment

Cosmetic: 미용치과, Bonding, Veneers, Whitening

Pedodontic: 소아치과, 소아 교정

Restorative: Fillings, 보철(Crowns & Bridger), 틀니, 부분틀니, 치아이식(Implants)

Periodontic: 치주 질환치료 및 수술

Endodontic: 신경치료 및 수술

Oral Surgery: 구강외과, 발치, 사랑니 제거

Whiter  
Brighter  
Faster

Whitening in about an hour

## 안치과

Cronin's Dental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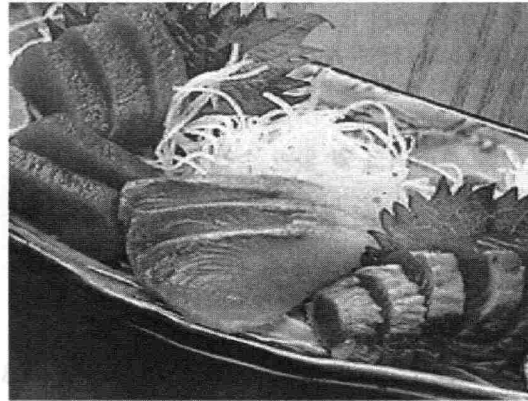
781-647-8000

225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 SAPPORO

Japanes Korean Restaurant

617.964.8044, 617.965.2862  
Fax: 617.969.8234  
81 Union St., Newton Center, MA 02459



AUTHENTIC JAPANESE & KOREAN CUISINE

## Sea Shai

Voted Best Asian Restaurant - Newport Life Magazine Readers  
Best Ethnic Food- Where The Locals Eat  
Voted RIs Best Sushi & Asian Restaurant- RI Monthly

**TWO LOCATIONS BOTH OPEN FOR LUNCH & DINNER**

### SEASHAI

747 Aquidneck Avenue (138A)  
849-5180  
Serving Middletown for 18 years

### HIBACHI GARDEN

14 Long Wharf Mall Downtown Newport  
841-0051  
Free Parking (next to Brick Market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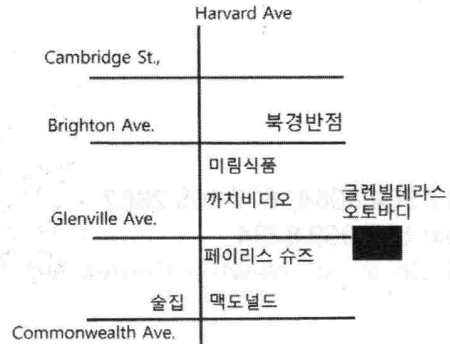
# AUTO BODY

Glenville Terrace

## 글렌빌 테라스

무엇이든 수리 및 복구  
 자동차 바디전문&사고수리  
 보험회사 추천 바디샵  
 저렴한 가격  
 튼업, 브레이크 및 일반 수리  
 오일 체인지  
 체크포인트 인스펙션  
 경험많고 친절한 상담원

Tel: 617-783-1515  
 10 Grenville Terrace, Allston, MA 02134  
 Fax: 617-782-8867  
 www. Glenvilleauto.com



### Kim Law Offices, L.L.C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 주요업무 분야: PRACTICE AREA

이민법 Immigration Law  
 상법 Business/ Corporate  
 형사법 Criminal Law  
 가정법 Family Law

#### 주요경력 EXPERIENCE

전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Fmr. INS Dist. Adjudication Officer(Boston)  
 Boston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전 미연방 세관 특별 수사관  
 Fmr. U.S. Customs Service Special Agent(NY)  
 전 미국 육군 심문관 U.S. Army Interrogator

Tel: 617-742-7707  
 76 Canal Street, Suite 302  
 Boston, MA 02114/fax: 617-742-7709

Licensed to Practice in Massachusetts & Connecticut

#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에서 요리 하나하나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 주세요

YASU RESTAURANT

## 야수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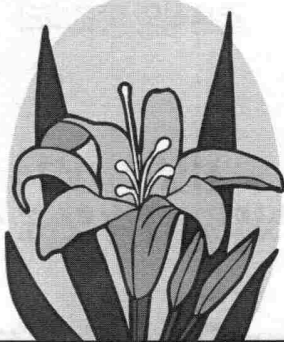
1366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617-738-2244

MYSTIC FLORIST

## 미스틱 화원

●결혼식, 장례식 및 각종행사 회화전문●



결혼식부케 및 행사관련 디스플레이를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1-877-234-0966

Tel:(617)666-3116, Fax:(617)591-2258  
414 Mystic Ave. Somerville, MA 02145

[www.tewksburyanimalhospital.com](http://www.tewksburyanimalhospital.com)

## Tewksbury Animal Hospital 동물 병원

Moon S. Kim, D.V.M.

1098 Main Street Tewksbury, MA 01876

978-851-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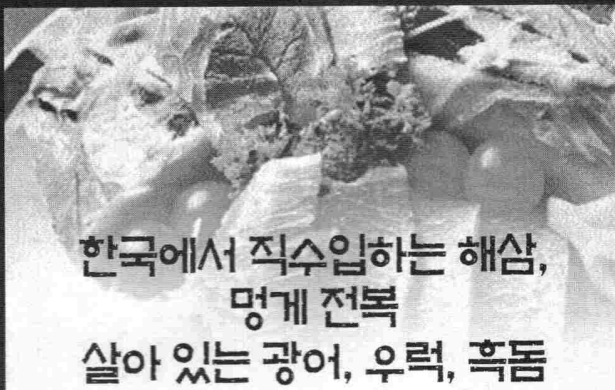
## 이운로 산부인과

Practice Obstetrics & Gynecology

Uhun R. Lee, M.D.

45 Pearl's Street Brockton, MA 02401

508-580-0044



한국에서 직수입하는 해삼,  
 명게 전복  
 살아 있는 광어, 우럭, 흑돔

Korean Japanese Restaurant

# 민속횃집

9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 731-7889

#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 김현구

Chris H. Kim

"정직과 성실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무료감정



617.694.0985/Cell  
 617.796.7333/Voicemail  
 617.969.2447/Business  
 617.969.7912/Fax  
 Chris. Kim@NEMoves.com

Boston  
 Brookline  
 Newton  
 Lexington  
 인접한 지역 및  
 Greater Boston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www. NewEnglandMoves.com](http://www.NewEnglandMoves.com)

엔진수리, 튜업, 트랜스미션, 에어컨, 브레이크,  
 페인트, 자동차전기,  
 타이어, 오일교환, 머플러, 컴퓨터 테스트  
 영업시간(OPEN HOUR)  
 월~금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 휴무

# 태양 자동차 태양 콜택시

태양 콜택시는 연중 무휴합니다.

170 Mystic Ave., Medford, MA  
 Tel. (781) 391-7700 (781) 391-6200  
 (781)391-3700 Fax: (781)391-3400

김밥 및 떡 전문  
 생일잔치, 교회모임  
 돌, 회갑 각종모임  
 결혼식 및 학교파티

저렴한 가격  
 맛있고 풍부한 음식

# 장 음식 주문

617- 623-0645





Beer & Wine

생선초밥 · 생선회

주말은 예약바랍니다 !!

FINE JAPANESE CUISINE

일식 전문 식당

*Mr. Sushi*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122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 Boston Asian American Services Inc.

Serving : New immigrants, Seniors, and Underserved  
Providing : Educational and Personal Services

보스톤 봉사회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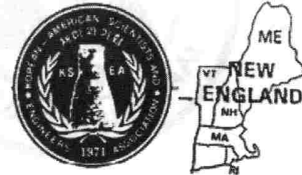
161 Harvard Avenue Suite 1A, Allston, MA 02134

PUBLIC CHARITY 501 (C)(3)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

Korean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The New England Chapter(KSEA-NE)



회장/ 최용택

Join KSEA New England Chapter  
Visit [www.kseana.org](http://www.kseana.org)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국제선/ 국내선 관광 패키지  
Cruise(유감선)

## 코리아 여행사

1-800-473-1922  
617-267-7777

650 Beacon St(Suite #205) MA  
Kenmore Sq. 9# 위\*

순두부 찌개 전문집

## Cho Cho's 순두부

7 Days Open 11:30am~9:00pm

갈비, 불고기, 비빔밥, 육계장  
1815 Mass. Ave., Cambridge,  
(Potter Sq.)

617-868-4246  
주차장은 건물 두편에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  
**김성군 변호사**  
Attorney At Law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 상해  
Personal Injury

이민법

사업체 매매  
Sale & Purchase of Business

부동산 매매  
Real Estate Transactions

회사법 · 상법  
Corporation & Commercial Law

이혼 · 가정법  
Divorce & Family Law

- 상해보상은 비용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 지불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스톤 근교 스톤햄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Law Office of Song K. Kim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Fax: 781-438-6177

오피스 요령: Rt. 128에서 Exit 38A로 나오신 후 약 1마일, 길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시민협회의 제18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 보스톤 지역 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of Korea, Boston Chapter

회장: 이정강

P.O.Box 40504, Providence, RI 02904-0505

# 401-841-0051

시민협회의 제18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18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지구



##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윤상래 사무총장: 이석호 총무: 이재형 IT Team: 이상운, 김제성  
재무: 오재익 섭외: 김문소 기획: 윤용훈 회원: 이진희, 배지선  
편집: 김은희 학생: 유성창 음악: 김지현, 김유경, 이상원, 장수인  
상임위원장: 김동희, 박영철, 김용구, 고일석  
고문: 김영호, 박재영, 박경민, 인준식, 김제호, 이재신  
명예회장: 정정옥 감사: 김양일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CEO: DR. SAMUEL YOON,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978)353-188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서 1975년에 개교하였고 미 연방정부와 메사추세츠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서 공식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009년 현재 기초 유치반, 성인반과 SAT-한국어 반까지 모두 4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슬기롭고 자랑스럽게!'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사회, 이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의 세 기구가 장기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수업 시간과 학급 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문의 및 교사 지원과 등록은 아래의 주소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 등록 연령: 3.5 ~ 성인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2 수업시간 및 교과과정

▶ 매주 토요일: 9시30분-12시 40분

- 오전 정규 수업 과정: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 음악, 작문, 연극
- 오전 특별 교육 과정:  
음악교육을 통한 한글배우기, 한국무용, 사물놀이반, 탈춤반, 수학나라

▶ 오후 특별 활동: 오후 12시 40분-1시40분

- 과목: 한국무용, 발레, 태권도, 미술, 사물놀이, 펜싱, 수학나라

▶ 성인반: 9시30분 ~ 12시30분 (성인1반, 성인2반)

3 학급 및 편성: 45개 반

- ▶ 기초과정(8)    ▶ 성인과정(2)
- ▶ 초급과정(6)    ▶ 오전특별교육반(8)
- ▶ 중급과정(4)    ▶ 오후특별활동반(7)
- ▶ 고급과정(3)    ▶ 입학준비반(2)
- ▶ 세종과정(5)

4 등록 및 학교 문의:

학교장 남 일 (508) 842-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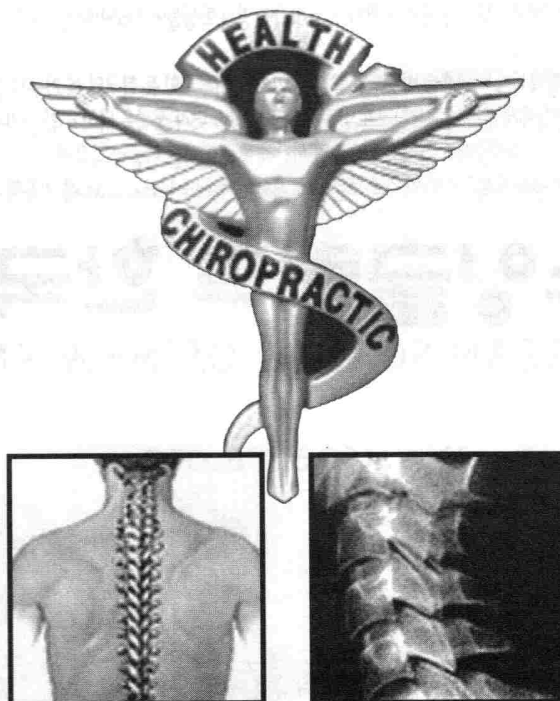
[ksneusa@verizon.net](mailto:ksneusa@verizon.net) / [ksneusa@hotmail.com](mailto:ksneusa@hotmail.com)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www.DrJinSung.com



자동차 사고 휴유증 치료 전문 병원

# FUNCTIONAL CHIROPRACTIC

척추신경 전문 **성진우**  
Dr. Jin W. Sung Chiropractic Physician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688-6999**

Fax: 978-688-4747



Open 7 days

Mon: 10:00am~ 8:00pm  
Tue~Fri: 9:30am~ 8:00pm  
Sat: 9:00am~ 8:00pm  
Sun: 10:00am~ 7:00pm

**항상 품질과 가격에 정직합니다**

**한국종합식품**

**Reliable Market**

45 Union Square, Somerville, MA 02143  
TEL.(617)623-9620 FAX.(617)625-8522

K o r e a n R e s t a u r a n t

With family and friends!

**모든 테이블에 최신의 바베큐시설로  
한층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Korean Barbecue Restaurant*

**KOREANA**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617) 576-8661**

Open 7 days



Korean Japanese Restaurant

# Kaya



케이 | 터링 | 문의 617-576-2222

1924 Mass. ave. Cambridge. MA 02140

617-497-5656